朝鮮日報 夕刊 十七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人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金炯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獨蘇關係緊迫

在留獨逸人檢擧로 兩國國交斷絶?

蘇當局의說明에不滿足하고 獨逸再次抗議할方針

【伯林十六日發同盟】뉴른베르히黨大會에서 히틀러總統이 打倒볼쉬비즘의 旗幟를 闡明한以來 獨蘇兩國間의 關係는 자못緊張을 보이고잇드니 蘇聯政府가 今回反國家的行動을 理由로 在留獨逸人을 一網打盡으로 檢擧한結果 兩國間의 國交는 重大危機에 當面하게되엿다

莫斯科駐箚獨逸大使館은 本國政府의 訓令에基하야 蘇聯外務人民委員部에 嚴重抗議를提出하얏는데 蘇聯政府는 當該獨逸人의 氏名을 通告하고 또漠然히 『間諜行動 테로行動及『反國家工作組織』의嫌疑로 逮捕하엿다는言明을傳한以外에는 何等誠意잇는 說明을 하지안헛다고 傳한다 獨逸政府는 以上의『形式的』理由에 滿足치안코 거듭하야 抗議를 提出할方針이라고 傳하는데 今後의發展如何에 依하야는 메트로폴리탄워커스社의 英人技師가 逮捕되엿든當時와 同樣으로 獨逸大使의撤歸로 마친내 獨蘇兩國間의 國交에重大結果를 誘致하리라는 觀測까지擡頭하게되엿다

巴里마탱紙는 十六日紙上에 今後推移를 念慮하고 『西班牙內亂에 關聯하야 蘇聯政府의 政策은 完全失敗되엿다 蘇聯政府는 이失敗를 補足하기爲하야 獨逸과 事端을 이르키려는것이아닌가』고 述하엿다 但伯林駐箚蘇大使館當局은 『國交斷絶의 危機迫』이라는 伯林外交界의一部의 觀測을 否定하야曰 뉴른베르히市의 黨大會의 當時에도 獨蘇兩國國交는 斷絶되지안흘가 傳하얏스나 아모일도업섯다 蘇聯大使館附武官도 國防相부롬베르크將軍의 招待로 『陸軍日』에 出席하고잇는것으로보아 國交上의 念慮는업다

反蘇테로嫌疑로 獨人廿三名檢束

蘇聯의擧措에對해嚴重抗議 十六日獨逸政府發表

【伯林十六日發同盟】獨逸人逮捕事件에對하야 十六日夜獨逸政府는 如左히發表하얏다

一、莫斯科駐箚大使館을 通하야 蘇聯政府에 嚴重抗議를提出한바 莫斯科在留九名 레닌그라드十二名 하리코프一名 노보시비르스크一名合計二十三名의 大量獨逸人이 逮捕되엿다는旨의 正式通告를 바덧다

一、右獨逸人은 間諜行爲테로行動 其他反國家運動을 組織한 嫌疑를 밧고잇는데 獨逸領事는 아즉 此等容疑者를 訪問할許可를 엇지못하얏다

一、此等獨逸人은 善良한 獨逸市民으로 嫌疑內容은 全혀 承服할수업다 그뿐아니라 逮捕後 十日을經過하야도 아즉犯罪의 具體的證據를 들어내지 안헛다 蘇聯政府의 通告는完全히 不充分이라고 할수밧게업다

一、以上獨逸人의 大量逮捕에對하야 獨逸政府는 蘇聯政府에 嚴重抗議하바 蘇聯外務人民委員部는 形式的法律的說明을返覆할뿐이다 蘇聯政府의 不當한手續에 對하야 獨逸政府는어데까지든지 抗議를繼續한다

手續에 對하야 獨逸政府는어데까지든지 抗議를繼續하고 政府의 動向에 深甚의 注意를 하고잇다

九次會談으로 日中交涉終了?

【南京十六日發同盟】日中交涉도 終末에이르러 川越張群第八次會談은 十八日이나 十九日頃擧行될模樣인데 右第八次會談에 압서 거듭須磨高宗武兩氏의豫備折衝이 擧行될것으로 觀測된다 그리고 雙方의 最後的態度도 只今까지의 折衝에依하야 相互諒解되엿스므로 突發的變化가 이러나지안는限川越張群兩氏가 大體順調로進行될것이며 更히다음一回即第九次會談을 行하야 이것으로爲先交涉은 解決될것이아닌가고도 觀測된다 그러나 綏遠方面의 情勢는 中國側에 內外로 衝擊을與하야 國民政府는 誇張的宣傳과相俟하야 一般輿論은 硬化를보이고잇다 國民政府의 態度로 이에 伴하야 意外의變化를 일으켜 交涉의 前途에 不測의 障碍를 가지고올는지도 알수업서 日本側은 國民

叛軍마河를渡涉 中央大學을占據

西班牙叛軍政府發表

【마드리드郊外陣地에서十六日發同盟特派員】叛軍政府發表 叛軍은 十五日拂曉부터 步軍及砲兵의 一齊射擊을 浴하야 左翼陣地를 擴張한 後 만사나레스河를 渡涉하야 進擊하야드듸여 中央大學 一帶를 占據하얏다 마드리드 市內에 有利한 地歩를 確保한 무어士人部隊其他精銳는 挺身部隊를 ... 되고잇다

綏遠救援運動 北平各大學에擴大

絶食煖房停止로義捐金募集

【北平十七日發同盟】北平各大學의 綏遠援助運動은 北京、北平、清華、燕京師範各大學을 中心으로 全大學을網羅하야 學生의絶食、煖房停止、義捐金募集等을決議하야 今日實行에 着手하얏다 右는 綏遠問題勃發後 一大結束을 본 北平各大學이抗日人民戰線의 統制下에 된것으로 更히 擴大의 兆가잇서 推移가 憂慮된다

抗日人民戰線이統制

平綏線惡化로 裝甲車를連結

【北平十六日發同盟】平綏沿線의

蒙古有力部隊 紅格爾圖를占領

十三日前進部隊二隊로分해 綏遠省陶林으로進擊

【北平十七日發同盟】蒙古人有力部隊의 陶林奪取戰은 十五日早朝부터 開始되여 前線要地인紅格爾圖에서 砲火를相交키始作하야 다시 午後十時夜襲戰이 展開되엿다가 얼마후그치고 十六日早朝의 第二次戰鬪도 큰變化업서 아즉까지 衝突에 지나지안허 主力部隊의 衝突은 十八日以後일것가튼데 이미綏遠軍의 第一次戰基地인 紅格爾圖를占領코그後陶林攻略에 옴긴것으로 觀測된다 그리고 包頭 五原方面에는 아즉戰端은 開始되지안헛다

【上海十六日發同盟】綏遠來電에 依하면 十三日前進根據地商都를 出發한 蒙古軍은 二隊로 分하야 騎兵部隊를根幹으로하는 一隊는 一路南下하야 興和方面으로 向하고 他一隊는 砲兵隊와 함께 西南方陶林을向하야 進擊하고잇다 兩部隊는 各地에서 綏遠軍前衛部隊와 小衝突을 繼續하고잇더 興和陶林等의 陣地에對하야 蒙古軍은 아즉本格的攻擊을 行치안흔模樣이다 그리고 蒙古軍 飛行機는 連日偵察飛行을 繼續하고잇는데 아즉爆擊은하지안헛다

【漢口十七日發同盟】第十一戰隊旗艦安宅은 十七日午前九時發 駐滬海軍部附로 轉補한 日比野少將을 태우고 上海로向하엿다

陶林外人撤去

【北平十七日發同盟】綏遠의形勢緊迫에依하야 陶林居住의 英米人約二十名은 昨十六日平綏線으로 北平으로 撤退하얏다

大藏省査定의 豫算歲入財源

【東京電話同盟】明年度豫算査定에 當하야 大藏省의 目標로한 豫算總額은 地方財政調整交付金을 加하야 三十億圓이나 今日까지의 査定狀況으로 明瞭하게된 財源은 主로 左와 如히 陸海軍兩省의 復活要求에 依하야 歲出總額이 更히 膨脹되면 그만치 明年度新規公債의 增發을 할밧게 업스므로 馬場藏相의 言明한 年額 十億圓의公債消化力에 對한 最高限度를維持할수잇느냐 업느냐에따라國防費膨脹程度에 依하야 決定될것으로 觀測된다

公債以外의歲入

一、普通歲入 十五億七、八千萬圓
一、自然增收 四千五百萬圓
一、增稅額(交附金財源組合) 四億二千萬圓
一、關稅增收 四千五百萬圓
一、煙草値上增收二千五百萬圓
一、特別會計繰入額 五千五百萬圓
一、郵便貯金利下에依한預金部餘裕金繰入額 一千二百萬圓
合計 二十一億七、八千萬圓

公債財源

特別會計明年度新規公債發行額을 一億五千萬圓程度로보아 이에 一般財源公債를 加算하면總額十億圓程度를 目標로하야 八億五、六千萬圓程度

湖北省政府 三鐵鑛을國營

【漢口十六日發同盟】湖北省政府諮議廳은 湖北省의 靈鄕鐵鑛 西山鐵鑛 雷山鐵鑛을 國營鐵鑛區로 하기 決定되야 實業部令으로써 其埋藏量은公布하얏다 靈鄕鐵鑛은 埋藏量一千二百三十四萬噸 雷山 西山兩鐵鑛은 埋藏量一千二十萬噸以上이라한다

國防費新規要求 政治折衝에委托

【東京電話同盟】大藏省과 各省과의 財務折衝結果 陸海軍大藏三省을除한 各省新規要求額은 四億一千萬圓인데 이에對하야 아즉査定을 終了치안흔 大藏省自身의 新規要求額을 一億四千萬圓程度로 概算하면 國防費를除한 各省新規要求額은 五億五千萬圓에 達한다 이것을 別項의 歲入計算에 비추어보면 陸海軍兩省의 新規要求承認額은 五億六千萬圓程度인것이 明白하게되엿다 따라서 大藏省으로서는 目下陸海軍兩省總額을 考慮하고 內務省과 地方財政調整交付金을 包含하야 겨우三十億圓程度로하도록 編成을 急히하고잇는데 그中에서 基準豫算額十八億圓을 控除하야 各省의 節減額을 計算하면 新規承認額은 十二億圓으로 査定할수밧게업는 狀態이므로 陸海軍兩省은 新規承認額을 最高限度六億五千萬圓을 査定할수밧게업다 따라서 大藏省主計局에서는 目下陸海軍兩省主計局과 內交涉을 進行하고잇는데 兩三日中에 이것을 省議에附議하야 陸海軍兩省에 對하야 査定案을 內示하기로되엿다 이에對하야 八億二千萬圓의 新規要求를 提出하고잇는 陸海軍當局이 如何한程度까지 妥協할는지 極히 注目되는바 結局二十日前後 馬場藏相과 陸海軍兩相의 政治折衝에 그解決이 달렷다

軍部獨善主義에 政友끗까지追窮

首相의釋明에滿足치못하고 一切를來議會로移牒

【東京電話同盟】政友會는 十六日의 議會制度調査會席上에서廣田首相의 言明及答辯을通하야

一、現內閣은 議會의 權限縮少의 政黨政治否認의 言明에對하야도 調査할 意思가업는것
一、陸相의 出席問題에關하야는 그必要가업다고 强辯한것
一、協和會에關한 植田關東軍司令官의 聲明에對하야는 何等答辯이업는것

等이 明瞭히되엿다고 하는데 陸相의 答議에서의 釋明을反覆할뿐으로 何等誠意잇는 言明에接치못한것을 자못遺憾으로녀긴다 그리고 黨의 今後의 態度에關하야는 首腦部와 黨出身委員과의間에 懇談을遂한後 來十九日의 幹事會에서 正式決定을 지을것이나 陸軍大臣의 出席으로 더욱 同調査會를 繼續할境遇에는

一、軍部의 議會改革에 關한眞意는 如何한點에 在하는가
一、議會政治否認에 關한一部言說의 出所如何及出所를 調査할 意思가잇는가
一、協和會에 關한 聲明의 眞意如何

에關하야追窮을試하야軍의 眞意를 究明코저하나 寺內陸相의 出席이업고 調査會가事實上 消滅하는 境遇에는 軍은國民과 가티政治를 論하야明朗한 心境下에 庶政一新에 邁進할 意思가 업는것으로 認하고 一切를 議會에옴기여 政友會는 軍部의 强硬獨善主義를 痛烈히糾問할것으로 觀測된다

話題論說 太平洋防備制限

華府 倫敦兩海軍縮條約은 마친내 今年末로써 滿期失効케되여 오래동안 日英米三國間의 海軍競爭을 制限하여온 軍縮體制는 玆에 完全解消되게되엿다 英國政府는 일즉右期間到來에앞서 三國海軍의無條約狀態에 對備키爲하야 日米兩國政府에 華府條約中 太平洋諸島嶼防備制限을規定한 同條約第十九條의 更新存續을 提言한바잇섯스나 日米兩國의 反對를 맛나 今日까지 何等成果를 收得치못한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勿論 英國이 右提案을 提唱한 理由는 政治的現勢가 英國으로하여금 尨大한 軍事費를 支出하지 안흘수업는 實情에서 起因한 것일것이나 그보담도 太平洋防備에對한 日米兩國의 關心을 打診키爲한것이 그實은 아닌가觀測된다

◇

右英國政府의 提案에 反對를 表示하는 米國海軍當局은 突然 華府條約의 滿期失効를압두고 太平洋의 中心이오 米國進攻作戰의 重要地點인 미드웨이島에 海軍根據地를 建設하는同時에 다시一步를 進하야 日本의 委任統治인 南洋群島에가까운 웨크島에 百萬弗을 投하야 海軍根據地를 建設할 計劃을 進行하고잇다 이에比하야 日本에서도 昨年度부터 到來할 無條約狀態에 對應하야 西太平洋의 制海權確保와 英米兩國의 大建艦計劃에 對應키爲하야 平年度보다 尨大한 海軍豫算을 計上하야 海軍擴充에 邁進하려는바 英國은 新嘉坡根據地構築을 集中的으로 進行하야 太平洋을 中心으로 日英米三國間에는 바야흐로 猛烈한海軍競爭을 誘致하게되엿다

◇

所謂太平洋防備條項은 華府條約에잇서 太平洋上에在한日英米三國領土及屬地의 海軍根據地에關한 現狀維持를 約定한것인데 一、日本은 千島諸島 小笠原諸島 奄美大島 琉球諸島 臺灣 澎湖諸島及 將來에取得할수잇는 太平洋上의 諸島嶼 二、米國은 알라스카、파나마運河附近의 諸島를 除한 東經百八十度以東의 太平洋上의 諸島及將來에 取得할수잇는 領土及屬地 三、카나다 濠洲 新西蘭을 除한 東經百十度以東의 太平洋上의 諸島及 將來에 取得할수잇는 領土及屬地에 海軍根據地의 新設과 現存防備施設擴充을 禁止한것이다 (李元坤)

農村振興委員會 視察指導件審議

京畿道에서는 十七日 午後一時에 京畿道會議室에서 滿村知事着任後 第一回의 農村振興委員會를 開催하야 委員長(知事)以下 幹事인 各部課長 指導職員等五十名의 會合으로 今月中에 實施할 指導班第二回視察指導의件에對하야 審議하엿다

綏遠軍趙氏 國府에戰況報告

【上海十七日發同盟】平綏線平地泉方面防備中의 綏遠軍趙承綬氏는 十六日附로 平地泉에서 國民政府에 電報를보내여 左와如히 同方面의 情況을 報告하엿다

蒙古軍은 飛行機及 大砲掩護下에 綏遠軍陣地를 攻擊하고잇는데 防禦堅固하기때문에 蒙古軍은 아즉 地雷를 突破하지못하엿다

蒙軍侵入阻止로 傅主席平地泉에

【北平十七日發同盟】綏遠來電에 依하면 陶林方面의 戰鬪開始와 同時에 綏遠主席傅作義氏는 戰線指揮를 爲하야 十六日早朝綏遠을 出發하야 平地泉에 急行하얏다 綏遠軍의 前敵根據地平地泉에는 騎兵第一師長趙承綬氏의 騎兵에依하야 蒙古의 進軍을 阻止할 作戰中이라고 傳한다 그리고 昨朝來數次에 亘하야 蒙古軍의 攻擊에도 不拘코 綏遠軍의 防備强固로 勝敗는 未決하야 興和陶林方面의 形勢는 아즉 逆睹되지 안는다고한다

相續稅中保險料의 免稅點을引上

【東京電話同盟】大藏省에서는 今回의 稅制改革에 依하야 相續稅引上을 行하야 從來 免稅하든 保險金中 一千圓을 超過하는 것에 對하여는 課稅하기로 決定하엿든바 實情에 鑑하야 保險金中 三千圓을 超過하는데 限하야 課稅하기로 決定하엿다 이것으로 保險契約口數의 八割은 課稅로부터 免除되리라고 觀測된다

拓務省强硬히 再復活要求決定

【東京電話同盟】拓務省은 十五日夜 明年度豫算第二次査定內示를 承服치안코 十六日午後四時半부터 拓相官邸에서 省議를開催하고 大藏當局과의 折衝經過를 報告한後 愼重今後의 方策에關하야 協議를 遂하고 六時會議를終了하얏는데 第二次査定內容에 承服치안코 再要求를 繼續하기로 決定하얏다 前復活要求總額六百萬圓中 南洋移民及 拓植事業指導獎勵에關한 經費를 中心으로하야 約五十萬圓은 承認되엿으나 滿洲移民計劃(滿洲開發會社에 對한補助 新京出張所擴大其他를包含)의 移民年度割計數에 關하야 아즉 大藏省과의 間에 完全한 意見의 一致를 보지못하얏을뿐아니라 南洋地方經濟提携方策確立에 關한經費 棉花及羊毛資源의開發에 關한 經費等의 要求에關하야 再復活要求를 持續하기로되엿다

羅政府外交策闡明

【부카레스트十五日發同盟】루마니아國王카롤二世陛下는 十五日午前루마니아 議會開院式에 臨하야 루마니아政府의 外交方針에 關하야 左와如히 述하엿다

루마니아政府의 外交政策은 國際聯盟規約內에잇서 佛國政府와 友好的協力을 保持하면서 自國領土의 現狀維持及 防衛를 充實히함에잇다 따라루마니아政府는 聯盟機能及 實力强化를 目的으로하는 一切의 行動을 支持할決意가잇다 그럼으로 現行諸同盟을 擴充强化하야 隣邦各國과의 間에 永久的 親善을 保持할方針이다 다음에 루마니아政府는 自國의 安全을 確保함과 同時에 國際平和에 寄與하야 國防充實을 圖하야 軍備强化에 邁進할 決意이다

人事·集會

▲相川外事課長 福島事務官帶同 十七日午後三時五分 京城驛發 二週日豫定으로 渡東
▲小汀利得氏(中外商業新報編輯局長)入京人事次 十七日本社來訪
▲渡邊玄氏(同商店部長)同上
▲全承範氏(殖産銀行員)樂園町一七番地自宅에서 遭令弟喪
▲玄龍奎氏(本報記者)十七日咸南新興郡東古川面興京里新婦自宅에서 金順煥孃과 結婚

八面鋒

◇在蘇 獨逸人의 檢擧에 獨逸政府 駐蘇大使를 撤回說。
◇거듭하야 氣候해 오는 새라 다저올 運命은 오고야 말일。
◇獨墺伊 四國連結이 되고 蘇佛英等 한 뭉텅이 되면 歐洲大戰의 對立狀態를 再演한셈。
◇팟쇼 勝乎? 民主主義 敗乎? 이것은 二十世紀의 興味。
◇議會制度調査會에서는 軍部의 革案이란것을 攻擊하야 政府로하야금 進退維谷케 해。
◇政黨政治 議會政治를 金科玉條로 삼는 議員들이 軍部官僚가 고치라는 議會改革制度를 反對함은 當然。
◇여기도 팟쇼 對 民主主義의 對立은 判然。
◇京城에도 初雪。 이제부터는 名實共히 겨울。

◉장계로불때는萬年風機◉
特許受付番號 11147・36671・36672
壹號 貳號

特約店募集
本機特長
一、本機는使用容易하며 焚口는 몃치라도 特次使用할수잇음
一、燃料는 왕겨 其他燃料物을利用함
(부서러지)廢物을利用함
一、本機는鋼鐵製로 十年以上使用可能하며 줄(벨트)도 鋼鐵로 長久히使用함
一、豪熱機는自動的으로 왕겨가 吹入됨
萬年風機製作發賣元
慶北金泉邑錦町一九四
鄭基東商店
工場 金泉邑錦町一三八番
電話 一二三〇番
振替京城二四五二五

登錄商標 登錄商標
京城 더룩
고무靴界元祖
大陸고무
京城中林町一五五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專務取締役 李圭元
電話本局(2)三三八番
振替口座京城一一二八一番
總販賣部 京城鍾路警察署前

至急社員採用 男子五名 女子二名 生活安定 親切指導
(月五十圓부터百圓以上)學歷中學程度年齡廿五歲以上希望者는履歷書持參面談에限함
面談時間午前九時부터正午까지
期間十一月二十五日까지
(京城府黃金町二丁目)
愛國生命保險株式會社朝鮮支部

適用症 喘息、氣管支加答兒、氣管支擴張、百日咳其他기침의諸症
藥價 「스페로인」 定價 六日分一圓、十五日分二圓、二十五日分三圓、四十五日分五圓、百日分十圓、(有名藥店에有함)
萬一御不便時는直接으로注文、前金은無料代金引換五十錢加
스페로인發賣元 東亞藥園
大阪市天王寺東平野町三(電車上五)
電話南四〇一五番 振替大阪七五一四番
特約店 京城南大門通新井藥房 同本町四丁目木村藥房 釜山辨天町大黑南海堂 平壤大和町森田藥店 大邱本町町田藥店

「스페로인」의偉大한作用
◇「스페로인」을 服用하면 猛烈한藥効作用이 나타나어 喘息의 毒素를 巧妙히小便으로 배는 强心性의 貴重한 化學藥입니다。
◇決코一時的속임藥은아니오니 아모리괴로운喘息의 發作도 「스페로인」의 服用으로 조용하게 나어서 니즈드시 됩니다。
◇완고한기침이 그치고 끈끈한 가래가 나와서 咽喉가爽快하되며 呼吸이 잘되며 身體에 爽快한溫暖感을 주어서 氣分이 非常히 조흐며 心臟이 편하고安眠이 잘됩니다。
◇이와가티 有効하나 모르히네나 아드레나린 其他의 毒劇藥의 問題가 안임으로 아모리 連續하야 服用하야도 人體에 絶對로 害가 업서서 念慮될 것이 업습니다。
◇繼續服用하야 두면 喘息의 發作이 적어지고 ··· 喘息이 나지 안토록 튼튼한 體質이 됩니다。
「스페로인」實驗者는 効力의 偉大함에 놀라서 「참으로 注射以上이라 고와여 깃버하십니다。 어떠한 喘息에 든지 効力이 참으로 的確합니다」 무엇을 服用하든지 無効하야 절망하든 사람이나 注射로 自己生命을 短縮시키는 사람에게 「大福音」입니다。 迷惑치마시고 꼭 實驗하십시요。 詳細한 說明書는 藥에 添附

당장에 숨이끄칠듯한괴로움
천식
놀나운新創見劑 「스페로인」을 速히服藥하고全快하십시요 완고한기침

注射以上의 卓效服藥

今新兵かじ

소만、우동、冷豆腐 其他여러가지반찬에 (고초가루)
月美人印からし製造本舖

合名會社 黑川與兵衛商店 大阪・天滿

各種作業服
コール天ズボン
靑年團服
乘馬ズボン
半短袴
(カタログ呈)
製造卸問屋
大阪市東區東淸町
橫田寶商店
電話東四六四九番
振替大阪一〇五六五八

鑛業用品 南京錠、大鎖、一般鍵、掛金、蝶番、取手、帽子掛、他一般建築金物、各種鎖類品、輸出向製品 カタ錄進呈

5K 北山達数商店
大阪市南區鰻谷東之町二十二番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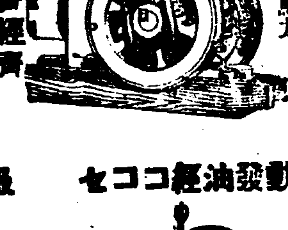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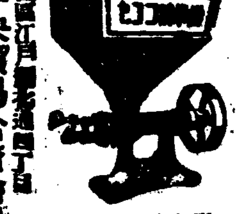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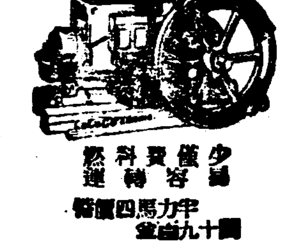
國旗會旗 優勝旗
國旗專門店

日本毛織旗布 バンテン一手販賣
(價格表送呈)
庄津村合資會社
大阪市南區鰻谷 電話 振替大阪

人絹端切各種卸
モスリン、綿ネル、絹ポプリン、本セル、金巾、四時、柄物、人絹
良品仕入은當店의信用
冬物運動服品揃
卸造製裝服般全
カタログ進呈

輸出! スポーツ日本 邁進! ツキギ服裝
ツキギ運動用品本舖
大阪市北區老松町
東京支店 東京市神田區神保町

木炭發動機

ウエム重油發動機
型一種一限制取扱簡單 完全燃燒 重油
燃料費經濟
改良型(二八五圓) 五・六馬力

セココ高級精米機

セココ輕油發動機
少經費 燃料費 運轉容易

十馬力四臺 九十圓
大阪市西區江戶堀
中央貿易合資會社
御用命店特約

食料品 オブラード バター 製菓材料 菓實香料
商標登錄
大阪市西淀川區大仁本町二
西本商店

眼鏡
파이프 쥐암이 煙草入 卷煙草
(價格表送呈)
(眼鏡卸部商報送呈)
煙草具專門製造卸
大阪市東區博勞町二丁目四
津田嘉助商店
電話船場四四四〇番
振替大阪一七五三四番

御仕入の好期來る
均一店、露店向
百般教育玩具の問屋
大阪市南區松屋町三十八
玩具問屋 合名會社
辻宗七商店
電話東三六〇番
振替大阪五六〇
二錢要ス商報送呈

中央都賣市場位置 京城驛構內로內定

七個部門·經營은自給自營

建設費는七十萬圓

무릇 三오레동안 연구해오든 경성부 중앙시매시장 개설안(京城中央卸賣市場開設案)은 십륙일 오후에 경성부회의실에서 그조사위원회(調査委員會)를 열고 자문하고 십칠일오후에 부청신문 긔자단에게 그안의내용을 발표하엿다 그것을 보면 선어부(鮮魚部) 청과부(靑果部) 염간부(鹽干部) 조란부(鳥卵部) 육류부(肉類部) 잡품부(雜品部) 립매부(立賣部)등 일곱가지 부분을 두어서 그가운데서 『선어부』『청과부』만은 현행의 시장규칙에 의하야 수용치급케하고 그밧게다섯가지 부문의 장사는 시장사용료(市場使用料)만 내면 자유로 장사할수 잇게되여잇다 생선과 과실두가지의 중요 식료품만으로도 물과이삼년 이내에 사백만원어치는 취급하게 될것으로 보고 잇는데 이것으로써 추산 하야 시장은 자급 자영(自給自營)으로 하여갈수잇스리라고 보고잇다 시장의 기지는 경성역구내(構內)의 공지약팔천평으로 그대부분은 무상(無償)으로 어더서 건설하기로되엿는데 그건설비는 칠십만원이내로 넉넉히되리라한다 중앙시매시장이라는것은 문자그대로 중앙지대로서 화물도착의 종단역(終端驛)으로 운수 교통의 중심지대라야만 가장 리상적이고 또한 그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잇는것인데 이점에잇서서 이번에 선정한 경성중앙시매시장의 위치는 일본내지는 물론이고 세계어느나라에도 보지못한 적당한 위치이라한다

서투른運轉에 橫厄當한老人

십칠일 오전여섯시 이십분에 시내 소화전긔공장(昭和電氣工場)직공 신영균(申永均)은 시내앵정정(櫻井町)일정목 구십팔번지에서 시내리태원정(梨泰院町)이백오십번지 사는 박춘보(朴春甫)(六二)라는 로인을 치여서갈비때 세개를 부러지게한 중상을 입혓는데 부민병원에데려다가 치료중이라한다 그런데 신영균은 시내영락정(永樂町)이정목계림(鷄林)탁시자동차 한대를 주인의 승락도업시 끄으러내여 련습하려고 약초정(若草町)으로부터 전긔 장소에이르럿슬지음에 엽골목에서 나오는 짐차를 피하려다가 도로공사에 쓰는웅집에 부다처여 그안에잇든 박춘보인에게 부다치게된 것이라한다 운전수면허장도업는 사람이 이와가튼 사고를내엿스므로 본정경찰서에서는 엄중히처벌할터이라한다

싹수노란자제 집돈차저豪遊

부내현저정(峴底町)사십오번지록십호에 거주하는김현찬(金賢燦)의셋재아들련배(連培)(一七)는십륙일 오후세시쯤에 부친에게서 저금통장과 실인을 바더가지고 한성은행(漢城銀行)서대문지점에와서 현금일천오백사십원을차저서 집으로 도라가야할 것을어듸론지 빼손이를 치고말엇는데 그길로 시내각류의점을 거처 오후열한시쯤에는 청엽정(靑葉町)삼정목에잇든 동양(東洋)『홀』에서 함부로 돈을 쓰며호세를 부리다가 룡산서원에게 체포되엿다 십칠세 소년으로 그가티대담한행위를 감행하엿슴에 대하야취조하든경관도 혀를 내둘럿스며공범자는업섯다고한다

結婚式압두고 警察에잡힌大賊

電車속에서三千圓을竊取

洋服店開業中에罪狀綻露

시내 관철정(貫鐵町)강도사건에 긴장한 동대문서 형사대의 활동으로 삼천원의 대소매치기단이 검거되엿다― 마장정(馬場町)백구십팔번지의일호 신득남(申得男)(二六)이는 훔친돈을 가지고 전긔주소에서 홍청양복점(鴻淸洋服店)을 하고잇다는말을듯고 십사일 검거하야 취조를 계속한결과 과연 그는 지난 구월십이일정오경에 하왕십리정(下往十里町)이백사십삼번지의일호 전과이범 리린구(李麟九)(三二) 평양 김신구(金信鶴)(假名)와 공모하야 종로네거리에서 『파고다공원』사이 전차안에서 충남 서산군 서산면 읍내리(忠南瑞山郡瑞山面邑內里) 량흥렬(梁興烈)(二七)의 호주머니에서 조선은행권 백원짜리서른장이란 대금을 훔처내여 리에게일천사백원 김에게삼백원을주고 전긔와가티 당당히양복점을 개업하엿스며 또결혼준비까지한것이 판명되엿다 그리고 십오일의 결혼날을 하로압두고 이와가티한동안의 꿈도무참히깨여지고말엇다한다

話題에올는年末賞與

二二總督府에선벌서給與額査定二二

세말도 인제한달밧게 남지안허서 관계에서는 벌서 금년의 『보-너스』에대한 이야기가 꺼리가되여잇는데 총독부인사과에서는십륙일 각국에대하야 금년의 상여표준을 세워서 각국에서는 이에따라서 각인의 급여액을사정하야 십이월십오일에 발령하야 동이십일일 일제히 현금을 지불할터이다 그표준은 금년은고관들의 퇴관한사람이만코 또그전에업든 인사이동의 여파를바다서 상여재원에는 자못 타격을바덧스나 한편 신규채용인원이대단 다수하엿슴으로 여긔서재원을 변통하야 적어도 평년대로 팍칙식히려고 인사과에서고심하고잇는 흔적이명연히보힌다 평균 고등관이십일할 판임관이십삼할 고원이십오할 이라는평년대로는될것이나 그이상도좀희망이업는모양이다

十月中外國郵便爲替振出金額…

체신국의조사를보면 시월한달동안 전조선우편소에서 취급한 외국우편위체(外國郵便爲替)의 진출금액(振出金額)은 오백십이구(口)로그금액은 이만팔천 팔십구원이고 불도구수(拂渡口數)는 일만사백칠십일구로 그금액은 이십팔만칠천칠백십오원이엿는데 전국조선외국으로 지불한것을 제하면이십오만구천 오백이십륙원이외국으로부터 조선으로 떠드려온세음이된다 작년시월에 비하면 조선진출 외국지불은 이할구분강(强)이나 추려젓는데 외국진출 조선지불은 팔할칠분이나경중하엿다

詐欺犯人窮餘一策으로飮毒自殺劇

無錢取食까지하고잡히게되자 양잿물먹고죽는시늉

십륙일밤 열한시경에 시내종로삼정목 동선(東鮮)려관에서지난십사일 주인의돈십원을 사귀해먹고 다라낫던 그전 리천(利川)우편소 집배인 리언길(李言吉)(二五)이를 붓잡엇다는 보고를접한 종로삼정목 파출소순사가 그려관에 쪼차가서 범인을붓잡아다가 파출소까지와서던니 갑작히 입에서 피를토하며 고민하기시작함으로 곳 시내수은정(授恩町)전일당(全一堂)의원에 입원식혀 응급치료한결과 양잿물을 먹고 자살하려던것으로 겨우 생명은 건젓다고한다 그자살극의전말을 알아보건대 전과가티 리언길은 횡령범인으로 소관주재소에서 지명수배중의 범인인데 그동안 도망하여 다니다가 돈이 다떠러저서 이날저녁때 곱흔배를 참지못하야 시내앵정정(櫻井町)오십사번지 국로리집에서 칠십오전어치 무전취식을하고는 할수업스니까 한대로 동선려관으로가면 주마고하야 려관으로오는것인데 려관주인이 곳파출소로가자고하니까 드듸여 최후를결심하고 흠으라서 가지고잇던 양재물을들내먹 어던것이라고한다

校洞公普同窓會

시내교동(校洞)공립보통학교에서는 오는이십이일(일요일)동교대강당에서 동창회를연다는데 회비는 오십전이며 다수한 동창회원의참석을희망하되 참석하시는분은 이십일까지 동교사무실로 통지하시기를 바란다고한다

妻와妻弟殺傷 自己도投井自殺

【海州】지난십오일오전다섯시경 옹진군동구면 평양리(甕津郡東口面平陽里)선부리순삼(李淳三)(三三)은 자긔의처(妻)되는김권옥(金權玉)(二七)과 그의동생 김모(金某)(一六)등제이서 가리자든중 돌연히 이러나 칼(刀)로 안해의목을찔너 중상을 입히고 음전긔안해의동생을 또찔너 즉사시키고 그마당압 우물(井戶)에빠저 자살(自殺)하엿다 그는 자긔에게대한안해의 사랑이 날로쌀쌀해감으로 늘상신하든끄테발작적으로 범의에 참극을 이르키고 그경솔한 행동을 후회한끄테비통한유서(遺書)한통을써노코 투신자살로서 죄과를 청산하엿다한다

死者十八名發掘

吉州朝鮮炭坑慘事事件後報

【淸津支局電話】지난십삼일아츰에 함북길주(吉州)에서발생한 조선석탄광업회사 탄광 탄차적락참사(礦落慘事)는 그후 사상자행방불명자의 발굴작업을 계속하여오든바 십오일에 현장에서락반(落盤)한것을 모다 굴출한결과 십칠일아츰에 이르러 사자 십팔명 부상자 삼명의 조란자를 발굴하야 수용하얏다 회사측은 방금히생자유족에 대하야 조위방법을 강구하고잇는데 현장에는 청진지방법원 청진지청파본(播本)검사가 실지검증하얏다

거리의노름꾼 一網에打盡

십륙일밤열한시반경에 시내관수정(觀水町)이십일번지압해서 십여명 거리의부랑청소년들이산치기도박을 하고잇는것을 종로서원이 습격하야 일망타진하엿는데 붓잡힌사람은 최귀복(崔貴福)(二二)등 아홉명으로 판돈륙원 십일전도 압수하엿는데 경찰에서는 최근 이들 거리의도박상습자들이 풍긔를 대단 어지럽게하고잇는점을 보아 특히 엄벌에처하엿다고한다

病死한嬰兒屍안고 시아버본女人泣訴

【十七日西大門署에事件될번한事件】

십칠일오전열한시쯤에 강보에싼 영아의 시체를안고 서대문서에 차저와서 자긔남편과 첩이 공모하야 자긔가 나흔아들을 죽엿스니 원수를 가퍼달라고 울며 호소한사건이잇다 때아닌련긔적사건에 아연긴장한동서에서는각방면으로 조사한결과 대개다음과가튼 결과를 매저이야말로 태산명동서일필격이되고 말엇다―즉 이녀자는 부내공덕정(孔德町)륙번지에사는 조별준(趙別俊)(二七)으로 작년칠월이일에 봉래정(蓬萊町)사정목이백구십사번지 담배장사하는 김원집(金元集)(三九)과가티 살게되여 구개월되는 금년오월칠일이 십삼일에 옥동자를 분만하엿다 그러나 무정한 남편은 첩을어더 가지고 어린것을 빼아슨후 전긔 조씨를 축출하고 말엇는데 십륙일 오후일곱시쯤에 애기가 죽엇다고하야 가보앗드니 사인이 수상한점이 만타고 진술하엿다 동서에서는 이녀자를 진정식혀가지고 서서히무렷든바 십륙일오후에 어린것이 알는다고하야 가보앗다고하며 일방 시체를 경긔도형사과에 가저나가 검안(檢案)한결과 병사로판명되엿다고하는데 동서에서는 조별준이를위로하여돌려보냇다고한다

罰金柄바든 賭博犯被捉

【光州】전남담양군담양면(潭陽面)사는 최태하(崔太河)(三八)는 골패세령위반(骨牌稅令違反)으로서 지난칠월이십일에 광주지방법원에서 팔천삼백팔십팔원의다액과결을밧고 어대로인지 도주하야 피신다가 광주서(光州署)원에게 십오일밤에 체포되엿다한다

三浦環夫人에게 激讚바든曺永恩君!

不日渡東·그의門下에入門

지난번本社音樂콩쿨에入賞한秀才

조영은

【平壤】본사주최 『콩쿨』대회 성악부(聲樂部)에서 영예의 입선을한 무명의 천재성악가 조영은(曺永恩)(二二)군이 세계적성악가 삼포환(三浦環)녀사에게 그특이한 천재가 인정되여 그제자로 최근 동경에 가기로 되엿다. 조군은 평양부내 창전리(倉田里)출생으로 숭실중학(崇實中學)을 중도에 퇴학한후 방금 진남포(鎭南浦)비행장에서 운전수로근무하고잇는데 원체가 음악을 조와하여 『헨들』을 손에 잡고도 일상 성악연습을 해왓든것이다. 이때문에 금추 본사주최 『콩쿨』대회에 영예의 입상을 하엿거니와 삼포환부인의 독창회가 지난십사일 평양공회당에서 열리엇든날밤 오후아홉시경 삼포부인에게면회를 청하고곡이라테일낙곡라파피코마를불렀든바 삼포부인도 목소래의 아름다운데반하여 삼포부인자신이『테스트』를한결과 이시험에 무사히파스를하여 『오-케』소리를세번이나 발하게 햇다 그래서 근일중 동경에건너가 삼포환부인의 문하에서 정식으로 노래를 연구하게되엿다한다

競技統制와 保健問題協議

全朝鮮學生主事會議開催

전조선대학과 고등전문학교 학생주사와 생도주사협의회는 십팔일오전열시부터 경성의전(醫專)에서 총독부 고미(高尾)학무과장과각학교주사가출석하야 개회한다는데 이번협의사항은 다음과갓다한다 사상선도문제 이외에 중요한문제는 근래에학생과 생도의건강이매우 허약하여지엇슴으로 건강증진에관하야 신중히협의할터이라하며 또 운동경기(競技)의통제문제에 대하야도 토의할터이라한다

書家 洪得順氏 米國留學

경성부행촌정(杏村町)이십번지 홍득순(洪得順)씨는미술연구차로 횡빈(橫濱)출범의 평안환(平安丸)으로 미국으로 떠나기로되엿다한다 씨는 동경미술학교(東美)출신의 신진양화가로 조선미전(朝鮮美展)에도여러번특선이되여스며 그동안 영생고등보통학교(永生高普)에교편을잡고잇다가 이번시카고미술학교로가서 미술을 더연구하러 함이라한다

金日成一派와 前哨戰展開

함경남도 혜산부(惠山府)에 웅거하고잇는김일성(金日成)일파를 토벌하려는○○대 현경찰대 삼림경찰대 치안대등으로 편성되야 저의지방을 몰려 치며 점점 그포위진형을 좁히고잇는데 십오일오후두시쯤 십륙도구대덕수리(十六道溝大德水里)부국에서 김일성부하와 조사령(司令)부하와의 합투라고추측되는 삼십여명의 토병과 부닥처서 약삼십분동안 싸운다음 격퇴하엿다

牛車夫屍體發見

中和郡楓洞面下에서

犯人蹤跡은依然杳然

【平壤支局電話】수수께기에 수수께기를 던지고잇는 평양우차부 참살사건은 십오일밤 김은일(金殷日)의 자백에의하야 그진상이 발견되엇스나 문제의피해자시체가 맹렬한 수사에도불고하고 발견되지안허 수사대로 하여금 초조케하든바 십륙일오후일곱시쯤되어 중화군풍동면(中和郡楓洞面)경찰관 주재소로부터 서북방 약사정가량되는 밧가운데에서 독기로 머리뒤를따려서 죽인우차부의 시체가 수수대로 덥허잇는것이 수사대에게 발견되엇다 그래서 평양서 리(李)사법주임은 평양의전의 구보(久保)박사를청하야 해부케 하는일방으로평양지방법원 대판(大阪)검사가 현장에 출장하야 현장림검까지하얏는데 이로써 우차부의 참살은 사실로 증거까지잡게되엇스나 범인 김은민의 행방은 아즉까지 묘연하야 언제 범인이 체포될는지모른다고한다

▲訂正 本報十一月十四日夕刊二面에 揭載된 京城帝大法文學部會計係雇員西牟田武光君飮毒自殺云云의 記事는 事實과 相違가잇슴으로 玆에訂正함

競技

全仁川籠球 全仁商優勝

【仁川】仁川體育會主催와本支局後援下에 仁商〃코-트〃에서 第一回全仁川籠球選手權大會를 十五日午前十時부터 擧行하얏는데 會長代理로鄭昌浩氏의 開會辭와 裵仁福氏의始球式으로써開會하야 始終如一하게白熱戰으로 幕을닷치니 榮譽의優勝은 全仁商軍에게도라갓다 當日의審判은 伯林올림픽選手廉殷鉉、張利鎭兩君을비롯하야 延專丁相允 金應鎬 姜永學 方元淳 金秉信 孫禎俊諸君이엿는바 戰績은다음과갓다

全仁商	54	(34 20 / 8 9)	17	高麗
仁基靑	2	(1 1 / 0 0)	0	仁協實
仁培	34	(22 12 / 15 12)	27	仁養
白雲	31	(13 18 / 6 12)	81	新力

【準決勝】

仁商	57	(19 38 / 8 8)	16	仁靑學

【決勝戰】

仁培	43	(19 24 / 12 19)	31	白雲

全仁商 對 仁培戰은 金應鎬 孫禎俊 兩氏審判下에 擧行한바 戰術은 莫上莫下하야 前半은十六對十六同點이엿스나 後半에仁商單力戰하야 結局三十四對二十三의스코어로써 仁商軍이 優勝하다

運動界人

▲李在馥氏(京城醫專蹴球部引率者) 來廿二、三兩日間 福岡서 열리는 全日本高專蹴球大會에 出戰人事次로 本社來訪

天氣予報

豫報 京城地方의 오늘밤은 개일터이며 明日은 개엿다가 一時는흐리다 京畿道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九度六
同 最低 零度三
今朝最低 零度〇
今日正午 九度九

第三回全朝鮮아마튜어選手權及올림픽代表李奎煥歡迎 拳鬪大會

時日 十一月二十七日과二十八日兩日間午後六時半
場所 太平通朝鮮日報社大講堂特設링
申請 十一月二十三日까지京城府黃金町一丁目一三四番地 同聯盟으로(電話本一九四四)
主催 全朝鮮아마튜어拳鬪聯盟 後援 朝鮮日報社

日本特許局登錄濟

新案特許 淋病治療器

藥物治療에 失敗한 患者여!

조타는약을 다써보앗서도 낫지안는림질이거든 이 긔게를 쓰시요 사람은 사람을 속이여도 과학(科學)은 사람을 속이지안는것입니다 과학에서나온 이긔게는 반드시당신의긔대를 저바리지안습니다

科學療法에 새로히 着眼하라

頒布代 一具 九圓二十錢 (小包料荷造費並朝鮮內四十五錢其他六一錢)
(淋疾自宅治療法無代進呈 要二錢切手)

製造元 京城古市町 東邦科學興業株式會社
發賣元 京城昌成町七三 平山幸運堂 電話光(長)二一九一番 振替京城二三八六六番

オール朝鮮愛用家大優待!

メンソレータム

大懸賞

누구나할수잇는
容易한問題입니다!

一、世○家○藥メンソレターム
右二〇中에適當한漢字를너흐면 メンソレータム의 有名한標語가됩니다。

二、이廣告를보신朝鮮日報名

三、당신의詳細한住所와姓名

以上을 メンソレータム의 二十五錢以上의 外函(十個分二個)의 裏面에明記하야(또는其他의用紙)封筒에너허서 十五日까지 三錢切手를貼付하야 左記로보내주십시오

보내실곳 京城府社稷町 竹內洋行大懸賞係로 一人이멫장이던지應募하여도좃슴니다 만히내면낼수록當選率이좃슴니다 (買求하신販賣店에서도 親切히取扱하여줍니다)

締 切 昭和十一年十二月二十五日

抽籤方法 正解者中에서 嚴正한抽籤을行하야賞品을送呈(特賞은正解者의希望하시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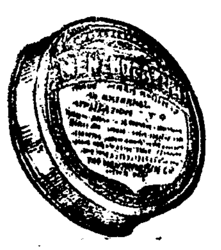
當籤發表 昭和十二年一月下旬 이廣告揭載新聞紙上에發表

主催 メンソレータム本舖

●正解者全部에이굉장한大景品이當選된다

特賞	白米五斗入	二叺
	나쇼날R-5라지오셋트	二台
	아이디알本縫미싱	一台
	銘仙夜具(絹裏)	一流
	크롬側鎖付懷中時計	一個
	別調冬오-바-	一枚
一等	大理石美術置時計	二十名 一個式
二等	三越特選優良石鹼	三十名 一打式
三等	二色샤-프鉛筆	二百名 一本式
四等	小美罐入멘소레-탐과小노-트	正解者殘餘全部에贈呈

◆世界의家庭藥◆ 살결거친데、살결트는데、外傷、火傷、頭痛、鼻炎、神經痛、痔疾、化粧下、面刀後



晝夜二回로 每日先着者 三百人에限하야 멘소레-탐一個式進呈합니다

ANNIE OAKLEY

사랑의 [illegible]

R・K・O라디오超特作映畵
바바라、스타윅主演
푸레스톤포스타 멜빈다그라스 助演
죠지스테븐슨 監督

유나이테드社超特作映畵
兒童文藝映畵의白眉!
小公子
天才少年 푸레데이、빠소로뮤主演
쪼-그、헌팅 監督
도로레스코스텔로 씨비리모어 } 共演
나어린세드릭이여러분의마음에말하는 問題의大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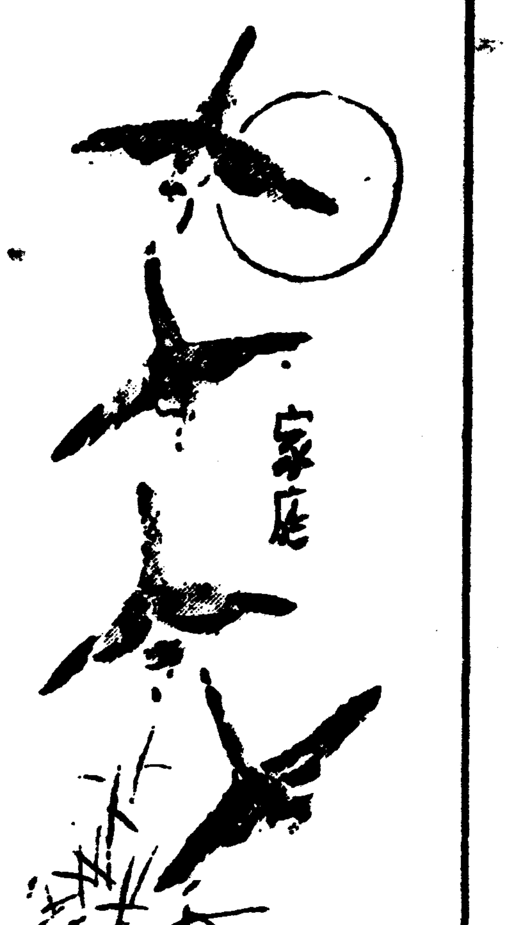
Little Lord Fauntleroy

렘플과가티 世界의人氣者가된英國出生의 名子役푸렛드 바소로뮤의適役「小公子」! 아름다운童心에 그리는휴 모아와 苛酷한運命에 抵抗하야 貴여운내아들을 愛護하는어머니의따뜻한情 사랑에의讚歌眞心으로感激이소사오르는 가을最高의 優秀篇 世上의 어머니와 아들에게 보내는 家庭映畵입니다

十八日封切

團成社

家庭



겨을에는명지옷 털보다 뜨뜻하다

제일치운것은 인조견옷감

애기네는입히지말일

그전에는 우리네 겨울옷감이라고 하면 대개 무명실로 짠 것이나 명지실로 짠 것뿐이엇습니다。 간혹 털로도 옷을 맨들어 입엇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아조 예외입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털로 맨든 옷감이 업나 털실로도 옷을 떠입지 안나 또 인견이 업나 형형색색의 원료로 맨드는 것이 만습니다。 확차 몸을 덥게 하고 치위를 막아 내는데는 더퍼 노코 털이라야 제일이올 알때쯤 되얏습니다。 그러나 사실로 가장 몸을 덥게 하고 또 가장 잘치워를 막아 내는 것은 털로 맨든 옷감보담도 명지실로 맨든 옷감입니다。 명지실로 맨든 옷감을 털로 맨든 옷감보담 덜치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어떠한 옷감이 가장 치위를 잘 막아 내느냐를 연구하기로 하고 각가지의 옷감을 똑 가튼 두께와 조직으로 짜서 사람의 몸을 가렷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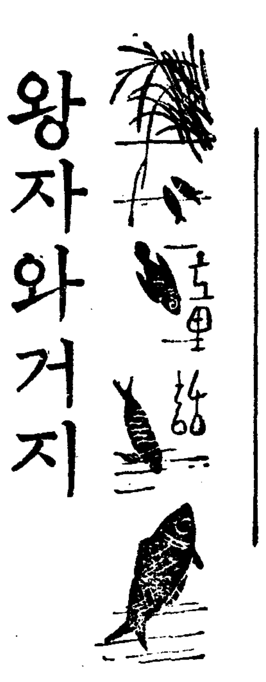
그러고 특수한 장치(裝置)를하야써 사람의 체온(體溫)이 다 각각 어떠한 정도로소비되나를 재도록 하얏습니다。 그래터니만 체온이 제일 적게 빠지는 것이 명지실로 맨든 옷감이요 그다음이 양털이요 그다음이 무명실이요 그다음이 인견이더랍니다。 즉 만하룬동안 인견옷감으로부터 빠지는것이 명지실옷감보담 오백 내지 일천카로리나 만흔것입니다 인견어야 본래 명지옷감과 비교할것도 못됩니다。 아조 그이상이 엇지 뜻뜻하다고 아는 양털까지도 명지옷감의 아래로 떠러지는 판입니다。

×

사람이 하로하로 보충해야할 카로리는 남자어른에게 잇서서 삼천카로리입니다。 그런데 인견과 명지로옷감이 틀린다고 해서 천카로리나 차이가 생기니 큰 문제가 아닙니까? 더구나 한참 커가는 판의 애기네들을 인견옷으로 해입힌다는 것은좀 끈란한 일입니다。 흔히들인견은 차다고 하지만은 그야그만큼 틀리는 것을 경험으로들 모르겟습니까? 그런데 보통옷감으로 짜서는 명지실로 맨든 것도 털로 맨든것만큼 뜻뜻지 못 한 까닭이 잇습니다。 털로맨든 옷감은 자연 공기를 만히 포함하게 되고 또 그공기가 열을 잘 전하게 안는 성질의 것인 관계로서 그럿습니다。 명지실도 그러한조직으로 달리 맨든다면 그이상 더 조습니다。 위선 풀솜이 가볍고도 얼마나 뜻뜻한가를 본다면 잘알수잇는것입니다。

×

그뿐이 아니라 명지실의 특색은 또 한가지가 잇습니다。 자선을 습수햇다가 다시 발산시키는 것입니다。 가튼조직의 헌겁을 태양에 한시간쯤 쪼인후 암실속에서 사진건판에 비초이면 인견은 아모런치도안코 본견은작용을 합니다。 또 인견과 본견헌겁으로 풀을더펏는데 본견은 이삼일까지살아잇섯다고 합니다。 그것을 실제문제로 응용하야 명지이불은 두시간쯤만 태양에 쪼인다면 열시간동안 자외선을 발산하고잇습니다。 속옷가튼것을 명지 등속으로 한다면 아조 훌륭해질것입니다。 그것을 해볏에 쪼여서만 입고 보면 일광욕을 하느니나 진배업는 효력을 가집니다。



왕자와거지

⑱ 마—크·토웬 作 崔秉和 譯

황태자가타신배는 눈이부시도록 황홀찬란하게꾸몃는데 수십척의배가 전후좌우를 호위하면서 배를 떠낫뎀스강을 내려갓습니다。 음악소리는 끄치지안코 해볏은 낫과가티 밝엇습니다。 옷둑 소슨 축하탑(祝賀塔)은 흡사히 보석으로 만든 듯하엿습니다。

『만세!』

『만세!!』

황태자의배가 지나가는곳마다 열광한 백성들은 소레노피 부르지젓습니다。

좋은 비단방석에 몸이걸반이나싸히채 정신이업떨떨한눈으로 량편강언덕을 자미잇게 바라보고잇섯습니다。

—그와는 딴판으로 에리사베스、젠·그레이 두공주는 심심한듯이 안저잇섯습니다。

배가언덕에닷자 좋은배에서내려서 기다리고잇던사람들가운데끼여서 천천히 연회장으로갓습니다。 납팔소리가 요란히 들려오자 식당장(食堂長)이나타나고 급사들이 들어왓습니다。 커다란 금잔을 둥에비치엿습니다。 찬포도주를 한모금마시고는 둘은향긋손잡이를잡고 가득 그것을 에리사베스공주에게 전햇습니다。 에리사베스공주는 그것을 젠·그레이공주에게 전햇습니다。 —이러케 금잔은 다음사람에게로 차례차례 이곳에 모힌사람의 손을 왼통다한번식 것처갓습니다。 이것이 연회의 시작입니다。 식사가 끗나자 무도회가 시작되엿습니다。

좋은 제일노픈자리에서 음악에마추어서 춤추며뛰고잇는 커다란사람들결에 정신이황홀해잇슬때 누더이옷을 입은 참말왕자는 사람들헤처가면서 간신히 연회장입까지 오게되엿습니다。 왕자는 물흥겨롤흘리갈라고하니깐

『이자식아、어듸를 드러가。』

하고 한사람이 막엇습니다

『무례한놈。』 하고 왕자는눈을떠부르떳습니다。

『나는황태자다。 지금 이안에 드러가서 거짓황태자를맛나서 혼을내주어야하겟다。』

『뭐? 황태자? 이놈이미첫구나。 황태자란놈이 거지꼴을하고잇서。』

『여기에는 까닭이잇는것이다。 허드백작을불러라。 그사람이면 날아라볼것이다。』

그러나 누구한사람 왕자의말을 참말로 듯는사람은 업고 도리혀 욕을하고 흉내를내며 오는사람은 쿡! 쿡! 건드리기까지도하엿습니다。 왕자는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분해하면서도 아조점잔케 못되사람들을 꾸지젓습니다。

『무례한놈들을 지금은 내가 거지꼴을하고잇서서 외로운 혼자몸으로 누구한사람도와주는이업는 불상한신세이지만 이거쭐가지고 씨러질사람이아니다。 나는 어디까지 여기버티고서서 나의할일을 끗내여야하겟다。』 그러니깐 그때 여러못되사람들을 허치고 왕자압헤나타난 한사나히가 잇섯습니다。

『아! 용감한소년! 안심하여라。 이제는 결코 외로운사람이아니다。 나라사람이 너의 편을 들어주마。 어디를 가든지 이 마일스·헨돈이란 동무는 차츰수어슬것이다。 —이자식들 왜 어린아이를 가지고 못살게굴고잇니? 또 한번만 뭐라고떠들어봐라 그냥두지안흘테니』

映畵「小公子」 (十一月十八日부터 府內團成社에서)

朝鮮日報讀者優待券

普通	階上七十錢을六十錢으로 階下五十錢을四十錢으로
小人	五十錢을四十錢으로 四十錢을三十錢으로

一人一枚

우리차지

“느티나무”

버섯은 하로밤새
자라서 나오나니
어째서 그런지를 아는가
어린 동모들아。
동리의 느티나무문
백년을 자랏서도
역시 제든지
느티나무 이구요。

(글지은사람 윤태웅)

(크리스티나·로제티—原作)

海外토픽

사십년만에 전해진편지한장

『베르그라—드』에 살고잇던이 방·마레숏치라는 사람이지금으로부터 사십년전에 『베르그라—드』근처『바—카—』라는곳에는 『코레나·크리스』라는 벗에게 부친편지가 어떠케된세음인지 사십이년후의지금에야 겨우 도착되엿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그편지는 전세계를 두번이나 도라단이다가 왓는데 겨우편지바든사람을 차저서보니 바들사람도 편지낸사람도 모다 죽어버리고 업섯습니다

라디오

十七日(火曜)

◇午後六時童話『떡을팔은게집애』 田 榮 澤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舞曲解說 吳 基 先

◇同七時三〇分 講演『精神衛生에對하야』 普專敎授 金 興 濟

◇同八時 流行歌 金 永 海 DK管絃團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不須嚬 二、唱劇調……春香歌中、夢中歌 曺 鶴 鎭 鼓手 丁 元 燮

◇九時(京)管絃樂(合唱付) 京城寶塚劇場으로부터中繼 京城寶塚管絃團 合唱大阪寶塚音樂學校 指揮 에마누엘·메테르

第一放送

◇午後六時 兒童과 對話唱歌

◇同六時二五分 (長) 靑年時間

◇午後七時三〇分 (東) 講演

◇同八時 (東) 講談

◇同八時三〇分

◇同八時四〇分 詩吟

◇同九時 (京) 管絃樂

十八日(水曜)

◇午後零時五分 伽倻琴倂唱 一、短歌 어화靑春 二、唱劇調 가、江樓中流 나、華容道 崔 桂 蘭 韓 成 俊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어린이의偏食』 李 先 根

◇同三時一〇分 (東) 敎師時間 (第一放送에依함)

◇同六時 하모니카와아코—듸온重奏 一、아코—듸온獨奏 童謠集……(반달、오빠생각、휘파람) 二、오—디내리、하—모니카獨奏 훔—스위—트·홈……비숍作曲 三、떠블빠스·하—모니카二重奏 東洋의舞曲……루브블스키作曲 四、아코—듸온獨奏 라파로마……이라터—作曲 五、떠블빠스·하—모니카獨奏 붉은날개……밀스作曲 六、오—디내리·하—모니카獨奏 軍隊行進曲……申孝彰編曲 七、아코—듸온獨奏 瀨戶內海의風景……福島作曲 八、오—디내리、하—모니카獨奏 波蘭의노래……尹琦善作曲 申孝彰 尹琦善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피아노伴奏 國語初等講座 高橋亨次郞

◇同七時三〇分 趣味講演 流行의變遷 梨專文科長 金 館 鍾

◇同八時 —京城歌謠의저녁— 一、時調 二、지름 三、사설 四、小春香歌 五、제비가 六、執杖歌 七、휘모리 八、노래가라 九、놀양 十、압산打令 十一、뒷산打令 渝 英 順 金 眞 紅 張 香 蘭 李 飛 鳳 李命山 李命吉 卓 福 萬 金 泰 運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大)童謠

◇同六時 (東)

◇同七時三〇分 (東)講話

◇同八時 (仙刺)俚謠

◇同八時二五分 (東)長唄

◇同八時五〇分 (東)浪花節

十九日(木曜)

◇午後零時五分 遊覽歌問 一、遊覽歌 二、뒷山打令 三、금드령다령 四、사슬방아 五、처녀가 閔 亨 植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겨울의化粧』 宋 亨 泰

◇同六時 童謠獨唱 一、풍당 二、동리의원(秦) 三、집신짝(姜) 四、가을밤(姜) 五、병정나팔(秦) 六、큐피님(秦) 七、참대배(姜) 八、중추는라열(秦) 秦 貞 姬 姜 林 鎭 伴奏 秦 寶 鳳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三〇 講演 天性과人格 佛專敎授 金 斗 憲

◇同七三〇 農村講座(一) 第二高普 金 雄 珏

◇同八〇〇 獨唱 一、寂寞한가을…玄濟明作曲 二、마르타中『꿈과가티』…플로—토—作曲 三、마리아마리…카푸아作曲 四、歌劇토스카中『별도빗나건만』…푸치니作曲 五、海邊의노래…成田爲三作曲 六、나포리의배人노래…伊太利民謠 李 仁 範

◇同八三〇 唱劇調 一、短歌竹杖芒鞋 二、唱劇調 沈淸歌 李 東 伯 鼓手 池 龍 九

◇同九時 (東) 管絃樂

第一放送

◇午後〇時〇五分 (東)能樂囃子

◇同六時 (大)兒童劇

◇同七時三〇 (東)講演

◇同八時 (長)茶談會

◇同八時三〇分 (東)落語

◇同九時 (東)管絃樂

★曆★

十一月十八日(水) 建己亥十月大(初五日) 甲辰·火·箕·執

●祭祀에宜함

●小雪二十二日(舊初九日)

●大雪七日(舊廿四日)

유—모어小說 姓女씨(十)

金熊超 作·畵

戰績의記錄(4)

『걱구로 매어 다세』

『몰을 먹이세』

하면서 남은 두사람도 승냥이처럼 달려 드럿습니다。

『허—정말 『몰』을 항세울들이요? 어—무서워。』

과장은 자리에서 벌떡이러낫습니다。 그리고 『왜 이러나십니까』하며 태하군이 붓드는것을 『나는 물러갈 차례요』하고한마디 남겨노코 과원들의 인사를 밧는둥마는둥 바그로 다라빳습니다。

과장의그림자가 사라지자 세사람은 부라키처럼 날뛰엇습니다。 민보군은 기를 부들부들쓰며 반항을 해보앗스나 독십센 몽백군이 한팔을 뒤로 비트러가지고 양수품푸 놀리듯 치켜다 내렷다합니다。 관수군은 도야지다리나 뜻드시 넙적다리를 물고 느러저서는 갈금 질겅질경 씹으면서 야수성을 발휘합니다。 태하군은 럭비선수처럼 목아지를 가슴패기에 끌러안고 짝업서 잡아느리면서 한손으로는 허리띠、겨드랑밋、엽구리……할 것업시 닥치는대로 간지릅니다。

이지경되고보니 고군분투하든 민보군도 할수업시 혀를 빼어물고 마럿습니다。

『아이 죽겟네。 살려줍쇼』

『어서 말해봐。 어데서 잣서?』

태하군이문초를시작햇습니다。

『네— 여관에서 잣습니다』

『여관에서? 거짓말마라』

『정말、려관에서 잣습니다』

『무슨 여관이야?』

『네、네、우메보시여관』

『우、메、보、시、여관? 그럼 여관이서울안에 어디잇서?』

『명치정에 잇습니다』

『그럼 그러타하고 혼자잣서 둘이잣서?』

『물론 혼자잣습니다』

『뭐이엇재?……트려라 트려!』

잠시 정지상태에잇든 몽백군의 양수품푸가 다시 놀기시작햇습니다。 관수군은 넙적다리를 다뜨더먹고 정갱이로 옴겨부른드시 무릅의 종지뼈를 달각달각 긁기시작햇습니다

『아이 죽겟네 사람좀살류!』

『어서토설을해』

『아야아야、저、저、정말이젓엇더케』

『정말이 무슨정말이야』

『이럿케아니라 노루말하게 이러케 주리를틀면 엇더케말을하나』

『어서 바른대로 토설을해어리면 될게아닌가? 어서말해!』

『글세바른대로말을헤는데두 고지안드르니 엇더커나』

『천만에 내집 내버리고 려관방에서 혼자 잘양이잇는가? 어서 바른대로 말해』

『아니 자네들이 이러케 생사람우줄일작정인가?』

『잔소리말고 어서고백해』

세사람의 작업이 또 시작되엇습니다。

『아야 아야—이놈들 함대로 해봐라』

민보군은 최후의 발악을다하면서이를 바득바득갈다가 그만 축느러저버리고마럿습니다。

그제서야 몽백군은

『인제 그만치 해두지。 운동은 썩잘됏네』

하면서 자기도 지친듯이 물러섯습니다。 태하군도 따라

『그럼 좀 휴식을할까』

하고 하—푸타임이나된드시끄러안엇든 목아지를 허노앗습니다。 그러나 판수군은 아직도양에 차지안은드시 정갱이를물고 잇나가 몽백군이

『자네는 엄만봐도 변태적인데가잇서』

하고 핀잔을주는바람에 겨우 그자리를 떠러젓습니다。

『그래 며칠터이나 뜨더먹엇나。 그만치먹엇스면 배부르지?』

하고관수군이 마저나서서 놀렷습니다。 태하군은 이소리를

『아、망할친구들!…그 고기는 암만먹어도 배가 안불러올라』

하면서 선선히 몽으로 버터치우고 민보군을 흘끄럼히 바라보앗습니다。

민보군은 한참 조련질을 당코난끄치라 의자에 안진채 넉시빠지고 풀이죽어 비마진 빨래처럼 축느려저 버렷습니다。

그러다가 몽백군과 태하군이

『그래인젠 엇더컨다?』

『살인죄는 범치안흔 모양이니 강도죄로 해버리지……제주제에 왼오입을 햇겟나』

하는 소리를 듯고서야 안심하고 부시시 이러낫습니다。

『이 부랑당들아 그래 내가강도 범이란말인가。 자네들이 강도살인 미수 범이란 말인가。 내 몸뚱이가 밧은 고무로 됏길래망정이지 그럿찬으면 나마낫겟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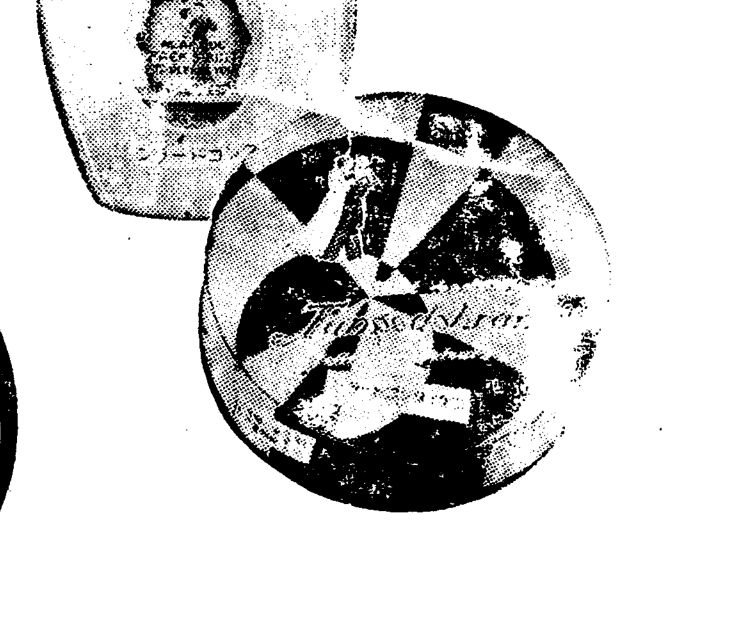
『가만좀잇게。 우리손에서는 나마낫지만 자네부인존에드러가서도 나마나겟나。 공연히 허세만 부리지말고 압헤당한 큰일을모면할도리를 생각해봐야지 안켓나?』

美와魅力의近代化粧料

タンゴドーラン

탕고—도—랑

白粉과크림과化粧水의三作用을單一品으로하는가장進步된特殊白粉



全國百貨店·藥局·化粧品店

タンゴドーラン七色

新製品

★映畵스타—의 愛用化粧料이다

洗練된個性 美와넘치는 魅力이나타납니다

Tangodohran

姉妹品(七色)

固形タンゴドーラン

탕고—도—랑

スマートな容器入・高級パフ付 各色一個 六十錢・三十五錢

學藝

人間學의 對象과 그 本質的制限 (一)

金基錫

學은 모도 人間의學이다。어한개命題는무엇을意味하는가 學은 본대 人間만이 가진다。學은 人間의 人間이 가지는 學이 된다。여기에 學의主體와 限界가온다 學은 먼저 人間의反省한다。學은 人間의 人間에대한學이되어야한다。여기에 學의對象의限界가버려진다。

人間및人間이 그속에잇는 現實的世界아말로 一切의學의根本地盤을構成한다。哲學도 그것이 한개學이한에서 그것은 이根本地盤을가지고 또그우에서 자라나는것이아니면 안된다。哲學은 시루언에서 자려나는 히멀금한 나물가튼것은아니다。哲學은 견은地面우에 뿌리를박고서서 기운차게올려오는 수풀가튼것이되어야한다。

哲學의地盤 이것은 人間自身의 『生』이아닐가。그러고 人間의秩序를 그속에가지는 實在의世界가아닐가。人間과實在。哲學은 여기에서 아모리달려도 꿋을놓수업는 한개宿命的對에맛난다。哲學은 부질업시 엇던超越的인存在를 想定할것이아니다。哲學은 뛰어넘어 理性의限界。認識의構成을 論議할것이아니다 먼저 자긔발미틀 드려다보라。그리고 人間에로 實在에로 뛰여드라。人間마저 한개實在인한에서、哲學이본대 자기를實在의學으로出發식힌데서 哲學은 人間이가지는 學의領域속에서 자기를 最高의學으로 主張할權限을가저섯다。

그러나 二千年三千年을 흐른는동안에 사람들이 形而上學이니 認識論이니 價値論이니 하는이름어래서 이實在의學으로서의哲學을 엇더케짓밟버노앗는가를보라。그리하야 오늘에이르러 現象學、生의哲學、存在學、辯證法가튼것에잇서서 다소 實在에으로서의 復歸를 보히면서도 依然히 한개거츤觀念的構成에머러짐을보라。우리들은 더상처바든 哲學을 해아서다가 그本來의地盤인 『生』의우에、實在의우에 옴기지안허서는 안된다。

一切의學問은 그것이 人間만이가진다는 主體性의限界에잇서서 모도 人間에대한 基本理解의우에서構成된다。말하자면 人間이가지는 一切의人間의學은 人間에대한理解로서의 人間의學에依하야 制約、規定된다。一切의學問 乃至文化의根據는 이人間의 人間에대한學이아니면안된다 人間의 人間이가지는學을規定하는 人間의、人間에 대한學이란 어떤것일가。

그것은 人間의存在또그課題에 대한 根源的解明을 가저오는것이아니면안된다。人間의存在및課題에대한根源的解明。이것은 實在의學으로서의 哲學만이 遂行할수잇는 또遂行해야하는 한개重要한使命이아닐가。人間에대한理解로서의 人間의學이哲學이人間이가지는 다른一切의學、規定한다。哲學은 말하자면 여러갈래의學問속에끼여 비비대이면서 그자신의 領域을다투고잇는것은 아니다。哲學은 一切의學問의뒤에서 또밋헤서 그것들에게 人間및實在에대한 根源的理解를가르치는 말하자면 學問의背後의學問가튼 것이된다。

文學이 科學이、人間및實在에대한 眞摯한探求에 드려서는때 그것은 文學이요 科學이면서 그자신 哲學의領域을意味하는것이아닐가。一切의學問은 그것이 哲學에도착오려는 한개久遠한憧憬을가진다고보여진다。모든學問은 哲學에서것이 그자신의엇던限界에나서 또그것을과에올려서면서을 적어고잇는것은아니다。哲學은 모든學問의밋바닥에서 그것들을비치고잇는 한개크나큰 探照燈가튼것에 지나지 안는다。

그런데 이날의 地盤으로서의 哲學이 다시 그자신의 地盤이되는것을 가진 다른것을 우리들은 우에서 말햇다。一般學問은 말하자면 哲學을 通하야 그자신의 밋바닥의 밋바닥인 生의世界、實在의世界에 通하게된다 學問—哲學—現實。그런데 學은 모도 人間이 가지는 學이고 哲學은 人間에 對한 理解이고 나아가 現實은 人間을 主體로하고 構成되는 意味의 行爲의 世界인데서 學問、哲學、現實을 通하야 모도 人間이 主體 또는 問題가됨을 본다。

醫學漫筆 (五)

—皮膚—

鄭槿陽

皮膚는 우리몸外部를 싸고잇는것이다。果然히 이러케 말해버리면 別것업지만은 좀 仔細히 皮膚를 觀察해보면 滋味잇는일이 만타。皮膚를 醫學的으로 觀察하지안튼데도 사람의몸을 아무것도 가리지안코 아메노코보더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수업다。더더구나 對象이 젊은女子이라면 더말할 나위도업다。비단결가티 아름답고 부드러운것은 가。숨결과가티 心臟의 뜨거운 려다는形容과가티 妙齡女子의 皮膚의 潤澤이아말로、무엇에다 比할수업스리만치 우리의 視覺에 快感을 가저오는것이다。表面의 奇奇妙妙한 屈曲起伏은 觀然히 하個의 大自然이 안일수업다。가슴의 女子인 乳房의 아름다움은 古來로 넘어나만히 藝術品의 對象이 되여오지 안엇든 鼓動과가티 눕게 약게 波動치는 乳房이아말로 數만혼 藝家가 畫幅에 붓을 옮기고 數만흔詩人이 이것을 읊픈것도 그럴법한일이다。이런이야기는 그만두고、皮膚의醫學으로 드려가자。皮膚의 附屬物은、여러가지가잇지만은 그中에서、皮膚에分布되여잇는 毛髮과汗腺에對하야 적어보려고 한다。毛髮은 몸에나는털이요、汗腺은 땀을製造하는곳이다。全體的으로보아、哺乳動物、개나、소는털이만타。털은 어머니배속에드러잇서 三個月만이면 나기始作한다。胎生八個月때가 가장털이 만타고한다。아이가出生하고보면、그러케만은것갓지는 안타。그런데 우리몸에털이 얼마나잇겟는가하는것을 顯微鏡으로 調査한 사람이 잇다 얼른보기에는 사람은 다른動物에比하야 털이적은것가트나 決코 그런것이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肉眼으로보아서 털이만타고생각되는것은 밧듯이 털의數가만타는것을 뜻함이아니요。數가적드래도 털이길면 만흐거가치 생각되는것이다。여기서 말하는것은 털의길이라든지 굵기를말함이아니요 單只 그數를 말하는것이다。사람이胎中에잇슬때는 원숭이보다 털이 만흔時期가잇다。이런것을 생각하면 털이적을수록 高等하다고 생각하엿다가는 큰일나겟다。사람은決코나든動物보다 털數가적지안타 出生한後로 사람은 衣服을 입는關係로 털이종업서젓슬 따름이다。털은 입술、손바닥、발바닥、젓꼭지、龜頭、小陰唇을 除한以外에는 身體어나곳에든지 나잇다。대머리영감님의 머리에도 털이하나도 업는것갓지만은 仔細히보면 솜털이 無數히 나잇다 只今皮膚一平方厘를 單位로하야、털의數를 세여보면 身體各部分에따라서 다 다르다。머리가 第一만코 成人으로一平方에平均五百本、만흔사람은 八百本이나된다 얼굴에도 배우만코顔部와 거반갓다。우리몸中에 第一털이적은곳은、배(腹部)다。動物도배가第一적다。一平方厘에約五十本가량이다。배에는、다음이약이하라는 汗腺의數도 가장적다。胴部는四肢보다 조금만타。등이배보다만타。單位面積內의 털의數는、나이를 먹을사록 漸漸주려간다。이것은、아마 身體의表面面積이、늘어가는關係일것이다 人種的關係를 차저보면 白人과 黑人은、東洋사람보다 털이만타고한다。이리하야 成人의顔部以面을너어서)의表面積을 千平方糎라고하면、約四十一五十萬本의털이잇는 計算이된다。頭部以外의體表面積을 一萬五千平方糎라하고 一平方糎의毛數를 平均六十本이라고하면 九十萬本이되고 몸全體를合하면 實로 百四十萬本이라는 놀라운數字를 어들수잇다。

다음으로 汗腺은 어떠케 分布되여잇다。汗腺에는 두가지種類가잇는데 A汗腺 E汗腺이이것이다 A汗腺은 特定한部位、眼瞼 外聽道의耳垢腺 腋下 肛門等에잇고 E汗腺이라는것이 普通말하는 땀구녁인데 여기 대해서 이약이하겟다 이것은 全身에 分布되여잇다。各部位의汗口數는、年齡에따라 差異가잇다 成人에잇서서、顔、胸、腹、背、臀部等에는 其數가적다。掌、蹠等에만타。다시말하면 末梢部일사록만타。哺乳動物은 四肢에만잇고、軀幹에는 殆無하다 그러면 汗腺은、어느때부터 생

盛況을 이룬 春山醫學會主催講演會

哭仁波金宗源君

湖岩

一

土橋江戶竝肩遊。車笠盟深志更遊。

三十年間桑頊盡。西望鴨綠不勝愁。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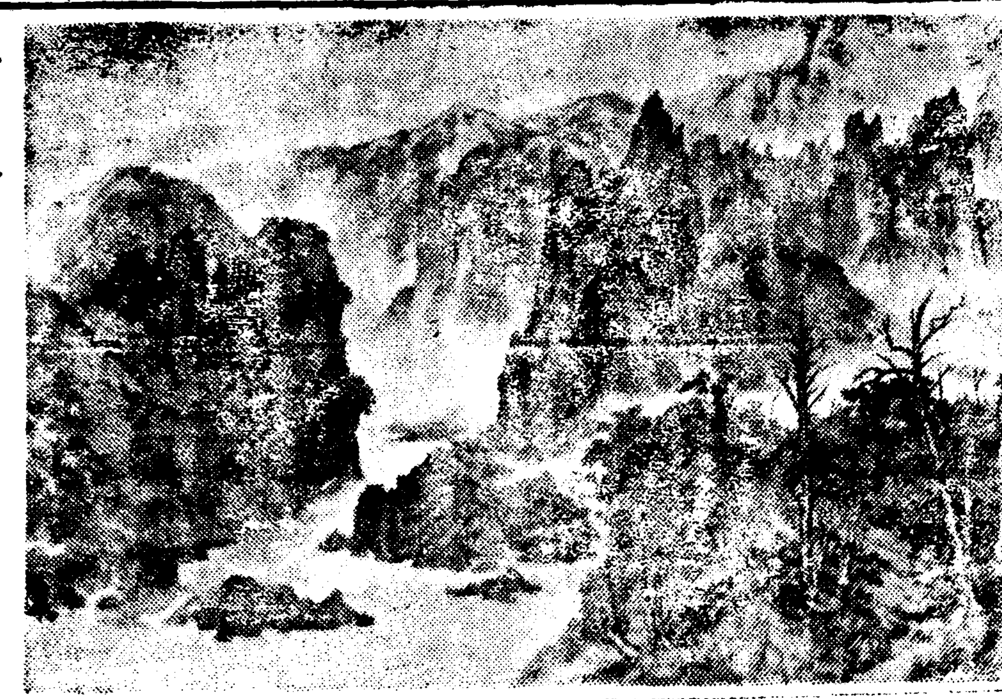
許心知己願爲雲。文彩風流鶴不群。

豈意暮春江上會。天教君我永相分。

三

憶昔同遊百感新。人間隻影但悲辛。

君家已種三珠樹。長得千枝萬葉春。



協展畫譜 (四) 晩秋 心汕 盧壽鉉氏 作

民村李箕永氏는 지난十一月十五日市內孝子町七七의一號自宅에서慘慽을 當하얏다고

第十五回맞는 協展印象記 ④

安夕影

◆金重鉉氏 이분은 今年總督府美展에서 異彩를 보힌분으로 다른事務에 밧부면서도 畵筆을 사랑하는 勤實한분이다 이번 『小兒』는 小品이로되 조금도 鄕土色을 보혀주엇다 이분의作品은 어듸인가 못 一點만을 보랴하지안코 氏의이一面을것이다

어떤것가튼고 구석이 뭘엇는데가잇는듯하다 이분의게는 이것이 도리혀 好條件을 사는것이니거기에 自己의作品이 너무일즉이 完成期에 들어가게두려워하는듯한 矛盾가 뵈히는것이다 여기서 오히려 氏의 앞날이 보힌다。

그리고 裵雲成氏 黃述祚氏 李興吉氏 이세분은 一長一短이잇스나 大體로 모도 前日을 기다린다。

◇西洋畵

西洋畵에 잇서서는 前作어 만흐나 鄭玄雄의作品中에는 豫期의 畵家가튼 느김을주는것이 잇다。

朝鮮에서는 아즉도 西洋畵에對하야 畵家가 意識하기때문에 畵家生活에도 苦痛이 잇슴으로 製作藝文가 東洋畵家보담은 적겟스나 이것은 歲月이 解決을 식혀줄것이다

◆鄭玄雄氏 이분은 今年에總督府美展에서 昨年의美展作品에 比하야 퍽러진感이 잇섯스나 이번協展에 出品한 『마돈나는少女와피에로』에서 氏의 一轉機를 보혀주는 느낌이엇다 이것은 今春 에서 天禀을 처고 行動한 所謂 美國 『써커—스』에서 三드을 어덧거나한것이데 그말은 그만두드래도 少女나 피에로가 實感이잇다 떠나가서는 그들의 生活의背景의色彩 衣裳의色彩、그들의 肉色가튼데서 엿볼수 잇스니 여기서 藝術家의 銳利한 觀察이 眞實하게잇다 나는 이분이 朝鮮畫壇에서 躍進하기를 조흘것을 이作品에서 직각할수잇다 또한가지 『採石場』은 別로히 藝術的인데는업스나 여기서는物象을 正確히 본는 沈着한 態度를 언제나 볼수잇다 筆者는 언제나 氏의 作品을 注目하는사람으로 너무이분의作品과 親해저서 그런지 모르나 이번 이作品에서 에서缺點만을 보랴하지안코 氏의이 一面만을 보앗다。

此에 눈 畫家가 아직엇슬을 생각하고것이 한다。

◆孔鎭衡氏 이분의作品은 히회해보지못한다로서 이번 作品가지고 기픈情趣、압나는花를 取하고 십나『雨後』에잇서서는 色調는조흐나 그實景가 影響하다가 내여더진것가튼 느김을준다 아프다시氏의作品을 보기로 하 氏의作品은 이것만할하다

◆李象範氏 이분의作品은 어떠한名畵人이나 거러나아가는 길에 한번을것잇슬수잇는 그때 에잇는이의作品인가나 어떠하분의時代에서는 멀리 떠러진 『바다는이어되엇소!』 하든키이려 그러함의은 조흡 업다 그러다고 나는 이作品을 比較할수업다 여기서 이러케나 저러케나 物象을 探求하기에 애쓰다가 큰것이 특위여나올수가잇다는 말이다 그러나 物象을너무 皮解하면 自己作品에對한 幻滅이오기쉬웁다는말을 해두다

◆李東勳氏 의『雨後風景』은 率直한 畫人의 作品이다 어듸고 크게 比較할때업는것이조흐나 도어되고 觀者의발을오래머므르게하는데가 적은것이이 作品이 平凡한것이다 그러나 이만한 技巧에알날이 업슬수업다

◆李鍾禹氏 이분의 作品은여러가지로 物象을 解剖해보다가 未完成된 作品갓다 그러나 태양이즘에 立脚해서 임이 出發한氏의 作品은 둘일업다 그리되 누구나 人體를 그리되 그環境 또는 그人物의 心理狀態가튼것을 생각아니하고 꼿이나 사과나능금과 가튼 靜物을 그리드키 그리케 色彩 中心의作品을만히보는터에 이번이분의 作品은 觀者에게 생각하게하는作品인것이다

新刊紹介

◆湛漫(特輯) 第一輯(月刊) 산제비 最後의消息 바리우는이업는햇볏 大地 바다 나의修業 季節의旋律(겨울밤) 흙우에서 病友 漢江 비치하는밤 어느地域風景 首府 古都 어두운밤 友人에게 發行所 京城府敦岩町二三九의八 湛漫社 振替京城七七六六○番

◆湖南評論 十一月號 發行所 京城府明倫町四丁目二○六 湖南評論社 京城總支社 定價二十錢

◆前鋒 十一月號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八八 天道敎靑年同盟本部 振替京城一六九四七番 定價三錢

「조선어표준말모음」 (13)

첫재, 가튼말(同義語)

(一) 소리가가깝고뜻이꼭가튼말

스라소니(名)土豹 / 시라소니 / 스물(名)二十 / 시물 / 스승(名)師 / 시승 / 승검초(名)當歸 / 싱검초 / 스치다(動)擦過 / 시치다 / 저그나하면(副)可及 / 저기나하면 / 즐겁다(形)悅 / 질겁다 / 즉기다(動)喫 / 직기다 / 즈음(名)際 / 지음 / 움즈리다(動)掩蔽 / 움치리다 / 요즈음(名)最近 / 요지음 / 요즈막 / 요지막 / 이즈음(名)此際、近日 / 이지음 / 이즈막 / 이지막 / 【一를 취함】 / 거즛(名) / 거짓 / 거츨다(形)荒 / 거칠다 / 구슬(名)璧 / 구실 / 기이다(動)欺 / 그이다 / 기우다 / 디지시(副)徐 / 던즈시 / 다시마(名)多士麻(海帶) / 다스마 / 디디다(動)踏 / 드디다 / 맡다 / 마지막(名)最 / 마즈막 / 마칫(副)適 / 마츰 / 마침 / 마칩내(副)竟 / 마츰내 / 마침내 / 묵직하다(形)稍重 / 묵즉하다 / 뿌리치다(動)拂 / 뿌르치다 / 버짐(名)癬 / 버즘 / 부지런하다(形)勤 / 부즈런하다 / 싫다(形)厭 / 슳다 / 싱겁다(形)淡味 / 승겁다 / 잘긋하다(形)稍細 / 잘굿하다 / 질러가다(動)徑路行 / 즐러가다 / 질긴(副)曳貌 / 즐긴 / 질편하다(形)廣漠 / 즐편하다 / 지레(副)預速 / 즈레 / 지름길(名)徑路 / 즈름길 / 지런길 / 짐짓(副)故意 / 짐즛 / 짓(名)行動 / 즛 / 징검다리(名)渡桑 / 증검다리 / 징경이(名)鶚鷲 / 증경이 / 칡(名)葛 / 츩 / 티적티적(副)相詰貌 / 트적트적 / 편집(名)編輯 / 편즙 / 하염직하다(形)可爲 / 하염즉하다 / 하양직하다 / 아직(副)姑 / 아즉 / 아지랑이(名)陽氣 / 아즈랑이 / 아침(名)朝 / 아츰 / 아참 / 아적 / 오직(副)唯 / 오즉 / 움직이다(動)動 / 움즉이다 / 일직(副)早 / 일즉 / ●ㅢ와 ㅣ의 通用 / 【ㅣ를 취함】 / 흰밥(名)白飯 / 흰밥 / 흰죽(名)米粥 / 흰죽 / 희나(形)白 / 희다 / 희짓다(動)妨害 / 희짓다 / 희읍스레하다(形)薄白 / 희옵스레하다 / 【ㅣ를 취함】 / 끼무릇(名)半夏 / 끼무릇 / 끼절가리(名)升麻 / 끼절가리 / 끼멩가리 / 거기(名)其處 / 거긔 / 거미(名)蜘蛛 / 거믜 / 고비(名)緊要機會 / 고븨 / 구기다(動)皺 / 구긔다 / 기껏(副)極力 / 긔껏 / 기다(動)匍匐 / 긔다 / 길잡이(名)途次 / 긜잡이 / 기쓰다(動)盡力 / 긔쓰다 / 기신기신(副)無力動作貌 / 긔신긔신 / 나비(名)蝶 / 나븨 / 나바지 / 넓이(名)廣 / 넓의 / 너비 / 넓버지 / 눈썹미(名)目力 / 눈썹믜 / 느티나무(名)欅木 / 늬티나무 / 누이(名)姊 / 누의 / 동기다(動)跳 / 동긔다 / 띠(名)帶 / 띄 / 띠다(動)帶 / 띄다 / 떵떵하다(形)力强 / 띄엄띄엄(副)斷續貌 / 다기지다(形)敢然 / 다긔지다 / 도끼(名)斧 / 도끼 / 덜미(名)頸後 / 덜믜 / 동이(名)水盆 / 동의 / 드리다(動)獻 / 듸리다 / 드티다(動)推移 / 드틔다 / 마님(名)婦人稱 / 마늼 / 말미받다(名)受由 / 말믜받다 / 모기(名)蚊 / 모긔 / 몽키다(動)凝滯 / 몽킈다 / 민둥산(名)禿山 / 믠둥산 / 민머리(名)白頭、禿頭 / 믠머리

第十四回 通俗醫學講演會

時日 十一月二十日午後七時

演題及演士

- 援腸窒扶斯에對하야 M·D 魚丕敦
- 비타민에對하야 醫博 沈浩燮
- 性호몬에對하야 醫博 李榮俊

處所 中央基督敎靑年會館

入場料 場內整理로因하야五錢徵收

主催 世專YMCA文藝部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新日本의傑作品

짤은 싱거—미싱과同一

가격은舶來品半價!

陸軍省御用 文部省御推獎

海軍省御用 各女學校採用

蛇の目 미싱 (國産)

躍進日本！의 覇者

이款 ... 躍進日本의 ...

國産 蛇目재봉틀은 ...

東京 本工場에서는 ...

全鮮進出를目的하고 一郡에 一店을標準하야 代理店을募集 하고잇사오니 希望區域를申込하시면 數量及特定價格等을 詳細히 回答하여드립니다

萬國標準型 國産蛇目미싱 萬稔ミシン商會

希望者는 京城府 萬稔ミシン商會 代理店係로

現在各代理店

[illegible]

資本金百萬圓 帝國ミシン株式會社 東京 大阪

朝鮮總代理店 萬稔ミシン商會 京城南大門通一丁目九九 電話本局(2)四五八三番 振替京城一四五二八番

本社 東京市中野區宮園町 大阪支社 大阪市東區心齋橋筋南久寶寺町 各地支社 名古屋、新潟、橫濱、神戶、京都、青森、甲府

婦人良藥

喜谷實母散 (히곡실모산)

産前産後에!

婦人病의治療와豫防에!

厥冷은婦人의大敵이다!

血液의循環을조케하고體內를根本으로덥게하며

婦人의身體를튼튼케하는信用잇는高貴藥이다

主効: 産前産後 四時感氣 / 足腰厥冷 입덧 / 月經不順 脚氣浮腫 / 經期腹痛 流産早産 / 子宮病 ...

定價

喜谷

類似品多數잇슴 實母의商標에注意하시오

本舖東京 喜谷市郞右衛門商店

連載野談 (六三)

布囊記

申鼎言 作 金熊超 畵

마저죽기소원 (一三)

이첨이가 사랑중문을 열려나갈제 만일 그 찰두라면 단단제하고 주먹 빰을 두눈에서 불이 번쩍 일어나도록 한번 후려 갈길 작정으로 오른조온주먹을 불끈 쥐고 왼손으로써중문 비짱을 빼면서 한편으로 엇비슷하게 노려보고 서섯다。

그런데 중문을 열자 중문안으로 들어서는 사람은 주인첩 늙은으로파이엇다。

이첨은 주먹을 잔뜩쥐고 독끼눈으로서 한것 벌르고 서잇다가 주인늙은이가 들어오는것을 보고 분통이 터지는중에도 하도 어이가업고 우수워서

『아니 할머니 웬일이시요?』

하고 의아한 긔색으로써 물엇다。

『웽 나는 여기 못들어올 사람이가。그런데 누구를 때려죽이려나 웽 주먹은 불끈쥐고 두눈에는 독살이 저럿케 독독 떨어저。』

하며 주인 늙은이는 흘흘 흔들 채머리를 내두르며 이첨이의 태도가 좀 이상한것을 물엇다。

『할머니두 망령이시유。때려죽이기는 누구를 때려죽여요。』

『그럼 왜 주먹을 쥐고 나를 보는 눈불이 그러케도 불량해?』

『흥 때려죽일놈은 아닌게아니라 잇소니다만은 대관절 웬일이시요 사랑에 나오시는일이 업섯는대!』

『아니야。나리께서 내집에 오신지가 벌서 두달이 넘으시나 큰 기침소리도 한번업스섯는데 지금어듸가신다 오는길에 들으니 큰 걱정이 나섯기에 혹시 내집에서 거행을 잘못해서 그러시는가 궁금해 왓지。』

『아니야요 다름일에 화중이나서서 나를 꾸지시느라고 걱정하신게야요。』

하고 이첨이는 그주인 늙은이에게떠들게된 까닭을 딴말로 핑계하얏다。

이때 리선전관이 이첨이와주인 늙은이가 서로 수작하는소리를 듯고

『옳지 저 늙은이가 할 그랑두놈의 때림을 찾아는 향오로 말하지。』

하고 곳 이첨을 불러 그 주인늙은이를 데불고 갓까히 오라고 일럿다。

가려 들어와 마루끄테 반만걸어 안젓다。

이때 리선전관도 마루로 나안즈면서 그주인늙은이를 향하야

『어째 나왓서。방갑을 재촉하라고?』

『아니야요 그러나 셈을 좀 해주시기도 해야겟서요。』

『암 해주고 말고。그런데 내게오는 찰두놈이 어듸서 살어?。』

『몰음니다。어듸서 사는지。』

『아니 내가 여기 처음 올때에 그 찰두의 말을 물어봣더니 병조판서댁 찰두라고 말한뒤 그놈의 래력을 자서히 말하고 지금은 물른만 말이 웬 말일가。』

『흥 이 늙은이가 그녀석의 래력을 어찌 압니까。그녀석이 갓끔 시골 양반님네를 뫼시고 주인을 정해주러 와서는 저는 어떼、어떼한사람이라구 직거리니까 나도 그런가부다하고 들을뿐 혹시 그녀석의 래력을 뭇는 사람이잇스면 그녀석의 말대로 대답햇지요。나리께도 그녀석의 말대로엿준것이지。내가 그녀석의 래력을 알어서 엿준것은 아니애요。』

『그러면 통 모르는말이지。』

『몰음니다。몰나요。』

『그러면 그녀석이 무엇을 해먹고사는것도 몰나?。』

『그것을 어찌 압니까。못된행로는 아마 협잡군이가봐요。』

『왜그러면 내게 그러말은 아니햇든가?。』

『아이고 나리마님두。나리마님과 그녀석의 사이가 어떠신지도 모르고 어째 그런 말슴을 함부루하닛까 천한 나희라도 나히살이나 먹은것이 입에 뚝을 드러가게요。』

『응 그럼찬군。별말할것이 업스면 거만 들어가지!。』

『모든 말슴이잇겟습니까。그저 생이나 좀 빨리해주셋스면。』

하고 그 주인늙은이는 안으로 들어갓다。

리선전관은 그 주인늙은이가 안으로 들어가뉘 이첨이가 또한 무엇이라고 지거릴줄을 알고 이첨이까지 제처소로 내쫏치뉘 홀로 안저서。

『허허。분명 속앗옛。다시는 그찰두놈을 더 차저볼 필요도 업는일。모두 내잘못이니까。그런데 내 잘못이라도 내가 사람을 보될때는 외심을아니하겟다(用人勿疑)한 그마음이 잘못이 아니라 사람을 알어보는 총명(知人之明)이 업는것이 내의 큰 잘못이야。그려커니 나처럼 어둔놈으로서 벼슬이 무엇이며 벼슬커녕은 살어무엇하나。에이。몰에라도 업는쎄저 죽어야혜!。』

하고 벌떡 일어나서 한강변을 향하고 나섯다

本社學藝部推薦의 家庭映畵 小公子

十八日부터市內團成社에서

이映畵는 一九二二年에 『메리ㅣ·픽포ㅣ드』가 映畵化시켜서 好評을 바덧던『프란세스』의 『小公子』를 『안나카레니나』를 制作한 『셀스니크』가 유社로 옴겨간뒤 第一回로 發表한것이다 主演은 『안나카레니나』의『프레듸ㅣ·바ㅣ솔로뮤ㅣ』며 脚色은 英國作家 『존ㅣ·월폴』가맛텃스며 『생물』의『존크롬웰』이 監督한것으로서 近來에 드물게보는豪華版이다。 더욱 이映畵의助演者인『도로레스코스테로』는『존바리모어』의 夫人으로 一九三一年以來 銀幕을 떠나잇던 女子며『C·오브레이스미스』는『바리모어』가 銀幕으로 도라와서 發表한『크리스치나女王』에 出演하얏다

撮影은『춘주』는뿌코ㅣ드웨이』와『野性의絶叫』를 밧은『찰스·롯샤ㅣ』『面前者의『메리ㅣ·픽포ㅣ드』의『小公子』때도 이사람이撮映을 마터보앗다 이原作의『小公子』란 小說은 一八八六年에 『센트·뉴ㅣ스』라는 雜誌에 揭載되엿스며『프란세스』夫人一代의 名作으로 一般家庭讀物로서 絕讚을 바더서 演劇으로 映畵로 再現되것이다

이 映畵의 스토리는 『세듸ㅣ』의 아버지는 英國의 貴族 드린코ㅣ트伯爵의 艮男으로서 米國에 건너가 米國女子와 結婚하얏다 그리하야 그들사이에 세듸ㅣ라는 아들이나서 뉴ㅣ욕에서 安樂한 家庭을 가지게되엿스나 어린 세듸ㅣ와 안해를 남기고 그는 죽어버리엿다 얼마가 지난뒤 英國에서부터 세듸ㅣ의 祖父 드린코ㅣ트伯爵의 辯護人이 나타나서 伯爵家의 相續人으로서 세듸ㅣ를 英國으로 다려가게 되엿다 老伯爵은 頑固한사람으로서 米國 女子와 結婚하얏다는 理由로 長子를 돌보지 안헛스나 孫子인 세듸ㅣ는 法律上 하는수업서서 다려오게하얏다 그리고 세듸ㅣ의어머니는 米國女子라하야 一步도 城內에 드려노치못하게하얏다 세듸ㅣ는 어린마음으로도 少人을 사랑하고 가난한 下人들을 同情하며 祖父를 공경하야서 頑固한 祖父의사랑을 一身에 모으고잇섯스나 그어머니는 세듸ㅣ에自己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려주지안코 조용히아들의 幸福을露하야 城外에서 참고잇섯다

이때에 老伯爵의 세째아들베비스의 안해라는 女子가 베비스와의 사히에난 아들이라하고 아히하나를 다리고와서 相續權을 主張하얏다 이때에 비로소 伯爵은 세듸ㅣ의 어머니가 善良한 女人이라는것을 알고 謝過하려왓스며 一方뉴ㅣ욕에서는 세듸ㅣ의 어려슬때 親舊들이베비스의夫人이라는 女子가 구두職工듸크의妻며 그아히도 듸크의아들이란 證據를 가지고일부러 英國까지 건너와서 立證해주엇다 그리하야 세ㅣ듸의어머니 에로ㅣ웰夫人도 伯爵의城內에들어와서 老伯爵과세듸ㅣ와幸福스런날을 보내게되엿다』는것이다 이映畵는 家庭映畵로서조흔效果를 가젓스므로 特히 本社學藝部에서 一般家庭에推薦하게되엿스며 오는十八日부터 團成社에서 上映하게되엿다

同時에封切되는 愛의彈丸

小公子와同時에 上映하는『愛의彈丸』은RKO의 特作으로서『쪼ㅣ지·스티븐스』가 監督하고『바ㅣ바라·스탄윅』의主演으로서 實錄에갓가운映畵다

이야기는 米國에잇는 엇더한『써ㅣ카스』團속에아니ㅣ라는 少女名射手와 토피ㅣ라는 男子射手의 사랑을心中으로하고 토피ㅣ와아니는 서로사랑하면서도技術에잇서서는 늘競爭을 하 잇섯다 그리하야 이사랑은 三角關係를매저서 더욱 複雜한場面을展開하는一方 써ㅣ카스團의歐羅巴興行에서 그들의成功으로끗막게되엿다 이映畵는『小公子』의沈着한展開에比하야 어듸까지던지 米國的인것이 눈에띄인다

本社讀者에게 優待券發行

十八日낫부터 市內團成社에서 上映되는 바소로뮤少年 主演의『小公子』와바바라스탄윅主演의『彈丸』은 一般家庭에서볼만한映畵로서 本社學藝部에서 推薦을하기로한바團成社側에서도 本社讀者를優待하야 特別히優待割引을하기로되얏다。(寫眞은『小公子』의한場面)

農村疲弊反映으로 細窮民去益激增
咸南에八萬戶에四十三萬名
比前年一萬名이增加

【咸興】최근집계된 세궁민(細窮民)의 통계를보면 너무나 험버슨농민이 만흠에 다시 금을 나지안흘수업다 시일만현재함남도 지방과의통계를보면 함남도내의 세민(細民)은 륙만이천구백구십오호에 삼십이만 일천오백오십명의 다수며 궁민(窮民)도 이만일천사백 구십칠호에 십일만일백구십삼명 합계팔만사천사백구십이호에 사십삼만일천칠백사십삼명의 다수에 달한다 이를 총호수이십팔만 사천구백십오호 일백오십구만 이백사십구명에비하면 실로 총호수의삼분의일약을 점령하고잇는 세음이며 작년의 사십이만이천명에 비하야도 약일만명의 격증이다 그리고 걸인(乞人)도 오백칠십사명의 다수에달한다 이와가티 세궁민의 작년보다격증한 원인은 단천(端川)장진(長津)등산지대각군이 지나간칠팔개년 동안 미증유의 흉작이계속한 관계로 서전에는부유하든 주민이 일시에 궁민으로 전에세궁민은 다시 다른곳으로 유리하게도엿든것에 원인이라고하는데 이제각군별로보면 갑산군(甲山)은 일천삼백 륙십이호에 사천구백이십구명의 격증이며 단천(端川)은 삼백사십팔호에 칠백오십구명의증가 풍산(豊山)군은 이백이십륙호 일천사백오십이명 장진(長津)군은 사백칠십칠호에이천사백십륙명의 격증을 뵈우고잇다

災民救濟事業으로 十萬圓勞賃撒布
土木、砂防、堤堰工事實施로 罹災農民에게一助

【淮陽】금년수해지방에는 전고미문의참담무상한재해로인하여전군내에서 오할이상의 농작물감수와 삼만여명의리재농민이 생도를일허버리고 생사의기로선상에 방황하고잇다함은 루보한바어니와 관계당국에서는 일반재해민을 구제키위하야 그동안제반구제방침을 강구하여 오든바 위선응급대책으로서 토목사방제언공사에착수하여 수만재민을구제키로 착착준비중이라고한다 이에대하여서 급히구제를 요할자는전군 이천팔십팔호에 일만사백사십사인의 다수에달한다는바 구제공사에대한 로임으로만십만팔백원을 산포할계획이라는바일반리재민에게 막대한도움이되리라고한다

洞民이私財모아 普盛書堂을新設
丹川有志들의敎育熱

【瓮津】황해도옹진군마산면 단천리(丹川里)는 칠십호에 인구사백삼십여를 포옹하고잇는 일개산촌으로서 그리넉넉지도 못한곳인데 더구나 교육긔관이업슴으로 아동지도에 결함이 잇슴을 일반은 크게유감으로생각해나려오든바 그곳유지 오인근(吳寅根) 오민석(吳敏錫) 오승권(吳承權) 오승창(吳承昌)외수씨의발긔로 분투노력한결과 리내에서 구취의연(鳩聚義捐)하야 그모흔돈 일천사백원을 가지고 무산아동의 유일한 교육긔관으로보성서당(普盛書堂)을 신설코자오래전부터 활동중이든바 지난십일일 오후세시에 오십여명 래빈참석하에 낙성식(落成式)을 성대히 거행하얏는데 건평총수는이십팔평으로 간이학교(簡易學校)에비하야 별반손색이어시젓엇다는바 벌서부터 입학지원아동의 수효는 오십명에 달한다하며 금월말일경에는 신축교사에서 개학할예정이라는바 금번학당 신설에 대하야 공로자라고할만한 동교교장 오인근외 오민석 오승권 오승창등 사씨는 왕방한 긔자에 대하야말한것을 종합하면 아래와갓다

우리단천동(丹川洞)으로말하면 적은산곡에 잇는산촌이나 벌서수백년전부터 인가가 생긴곳으로서 그리부촌은 못될망정 각자가 근농하야 겨우 계량이나 지속하는 곳으로서 엇지학교를 신설할만한 여력이 잇겟습니까마는 어린아이들을 다른학교로 보내자니 거리가머려서 매일 통학하기도 극히곤난한데다가 입학허가의 정원수도 잇슴으로 설사입학이 된다하드라도 우리동리의 아동륙칠십명중에서 겨우 두세명박게는 더공부를 식일수업스니 우리의 자매질을은전부가다 무식장이만되고말라밈으로 우리면여사람이 벌서여러해전부터 학습강습소를 신설해보라고 남이 아지도못하게 무한한 고통과애를 써오다가 비로서 지나간 시월중에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마타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빈약한 주머니를털러서 이단천회당의 교사를신축하게 되얏습니다 아푸로 사회여러분의후원과 지지가잇기를 비랍니다 운운

◇寫眞……(上)修築竣工된西湖漁港全景 (下)洪原前津港의"도루먹이"陸揚作業光景

平壤放送局 開所式擧行

【平壤】평양방송국에서는 십오일 오전열한시부터 제일방송실에서 관민유지가 집합하여 성대한 준공의과 개소식을 거행하고 정오부터는 복도(福島)방송국장의 인사로 본방송이 개시되엿다

평양방송국은 지난사월부터 이십만부민은 물론 서조선삼도민의 긔대하에서 신축공작이 시작되여 팔개월만에 대망의본방송이 시작되엿슴 각방면의 인긔는 비상히 집중되고잇다

延黃南水組主催 多收獲品評會

【延安】연백군연해 황해량수리조합구역내에서 산미증수를 장려하기위하야 전기량수리조합에서는 련합추최로 제일회수도다수확품평회(水稻多收穫品評會)를 지난십오일 오전열시부터 연안소학교내에서 개최하엿는데 수도다수확품평회에 입상자가 삼십여명에 달한다하며연해수리조합구내에서는 반당수확은방조가 록석륙두이승이 최고이고 황해수리조합구역내에서는 조신여으로 칠석팔두삼승에 수확이 최고이라고한다

慈堂回甲을記念 五百圓을喜捨
韓林氏美擧

【咸興】함주군동천면 회양리(東川面會陽里)한림씨(韓林氏)(五三)씨는 십오일 자당의회갑(回甲)을 긔념키위하야 일금오백원을 사회사업에 희사하엿는데 동천면흥문학교(興文學校)에 삼백원 동교야학부에 백원 동천유치원(幼稚園)에백원식 각히분배하엿다한다

徐智淳氏遺志로 一千圓을喜捨

【黃池洞】룡강군지운면 안성리(龍岡郡池雲面安城里)에거주하는 서지순(徐智淳)씨는 얼마전세상을떠낫는대 동씨의 유지에 재산을자손들에게분배하는동시에 일금일천원을 진지동 장로교회(黃池洞長老敎會)에 긔증을 허락하엿다는데 일래서씨는 평시에도 수차 거금을 교회혹은학교、유치원등에 긔증하야 자선사업에힘쓰든바로서 련근의칭송이자자하엿는데 금번에도다시 그와가티대금을긔증함으로 이교회에는 부속한학교도잇는관계상 금번의미거는 비단교회뿐아니라 사회에서까지 칭송이자자하다한다

慰安映畫大會

【彦陽】언양우편소주최(彦陽郵便所主催)로 서본보언양지국후원을어더 오는이십이일오후칠시부터언양공립보통학교운동장에서 조선간이생명보험가입자 위안영화대회를 개최키로되엿다한다

龜城郡에서發生된 今冬드러첫僵屍
暴飮끄테雪寒을못이겨

【龜城】추수가 끗난 농촌사람들이 장날에 드러와 술을 먹고 여러가지로 불미한일과 폐해되는 일이 만흔바 가장 큰 폐해라는 산중거름 시체로 표시한 사건이 귀성에생겻다。 귀성군 귀성면 상단동(龜城郡龜城面上端洞) 리영백(李永伯)(三二)이란 농부는 지난십이일 귀성읍내 장날에 드러와서 너머나 폭음하고 집으로 도라가든중 오후아홉시경 귀성읍내 동문밧게서 갑작히 추워진설한후에 몰동사하고마럿다 가족은 사오인이나되는바 남은가족의 생활전도는 아주암담하다고한다

慘!이무슨怪變!
務安郡海岸에十四日동안에
—溺死體十四個漂着—

【光州】금년은 일반농작에잇서서나 또는해산어업에 잇서서나제해악운의 불긔한해라고 일반은 부르짓고잇다 그런데 남해안일대에 금년가티어업자의 희생자가 만이난해는 업섯다 더욱이 다도해(多島海)일대의 무안(務安)군내에서만 금년일월부터 동십사일까지 십사개의 익사체가표착되엿다한다

海州에强盜出現
現金强奪逃走

【海州】지난십사일 오후열시경 연백군목단면 봉덕리(延白郡牧丹面鳳德里)구백십이번지 리대근(李大根)(三七)은 해주합성정미소(海州合成精米所)에서 벼(正租)를파러가지고 집으로 도라가든도중 해주군영동면공해리 웅천동(海州郡泳東面公海里熊川洞)부근에이르는해술때 배후에서 한명의괴한이나타나 칼(刀)을 내대고「버린돈을내라!」고협박한후 현금사원칠십전을 강탈도주하엿다는데이급보를받은 해주서(海州署)에서는 범인을엄탐중이라한다

鰮群本格的襲來로 數千當業者雀躍
東草一帶에活況

【大浦】미증유의 춘긔어획의부진으로 이래사선에서 허덕이든 대포근해의 수천의어업자 들은 추긔풍향에 상처를바든 조마조마한마음으로 지난칠일부터 시험적으로 출어(出漁)하엿든바의외로 정어리는대량(大量)으로출래하야 배마다만선의 긔쁨을날리며 도라오는데 속초(束草)항내에는 종업원들로 어산이해를 이루엇스며 일반의경긔도 호전되다고한다

嚴冬雪寒을압두고 六百戶에撤去令
모다細窮民으로去就가問題
光州府에서近近斷行

【光州】광주는 작년시월일일로 부(府)승격이후 각방면으로 부흥공사를 진행하며 또도시계획의전제로 광주천(光州川)도 정리하게되여 부동교(不動橋)로부터 신광주역(新光州驛)부근까지 약오백미돌에 긍하야 하천양편에 거주하고잇는 세궁민들 륙백여호에 대하야 타처로 이거할만한 갱생부락(更生部落)을설치하야 이거케하다는등 부회에서까지 결의를한바 잇섯는데갱생부락이라 할지라도 토지만을 무료대부하나 그들이 철거비에는 일호매당오원내외밧게 주지안는다하니 엄동을압두고 그들의고통은 크리라하며 부당국은 경찰과 협력하야 즉시철거를단행하리라고한다

左岸은工業地帶 北部는住宅區로
平壤府의市街區畫案

【平壤】평양시가지계획의 구역과 도로망、구획정리에 관해서는 부회에서 자문안이 통과하엿거니와 지역과 지구에 대해서는 최근 총독부에서 결정하고 다시 부회에 자문할 예정인테 대체 총독부의 예정으로서는 대동강의 좌안(左岸)은 평양가 련결하고 수운(水運)의 편한점으로 또는 긔설공장이 만흔관계등으로 공업지대로하고 현재의 우안(右岸)인 시가는 번화한 상업지대로하고 시가의 서편과 북편은 풍광이 명미하므로 주택지대로 할 의향이다

그리고 보통강의 개수에 따라 류역일대의 평야는 중소공업지대로 할터이며 이번 도시계획안에는 안드러서도 하류에잇는 두로도(豆老島)를 중심한 일대도 장래의 대공업지대로 지정되여잇다

普光學校增築 義捐逐日遝至

【新安州】귀부ㅣ평남안주에잇는 사립보광학교(普光學校)는 대정십일년에 보광학원으로 인가되여 경영하던중 다시학교(學校)로인가되여 근십오년에 졸업생수도륙십삼회나 내이고 졸업생수도륙백여명에달하는 호성적을가지고 잇는바 작년초춘에 유감히도교실이 붕괴되여 부득이 교실부족으로 원근학생을구별하여 전후를가려 교수하고잇슴을 동교교장 오덕항(吳德恒)씨가 근심중에잇다가 금번교실증축의 긔부인가를바다가지고 지방일반에게 긔부를모집한바 매일긔부금이답지하는중이데 십오일까지 드러온긔부액은 다음과 갓다고한다

安州 李東衍五百圓 李炳翼三百圓 新安州 崔成恒百圓 安應玉百圓 安炳卓百圓 康泰寬五十圓 金化鼎五十圓 本報新安州支局崔鳳恒十圓 石雨敏五圓 以上

滑氷場設置를 體育會에서發起

【淸州】청주체육협회에서는 스케ㅣ트장이업슴을 유감으로생각하여왓는데 금번에는 청주읍도하정(稻荷町)대련사(大蓮寺)압못을리용하야 설비를하기로되엇다는데 회원제도로 일반으로입장 학생오십전 소학생은삼십전의회비를 밧기로되엿다고한다

盤東山에山火 三日만에鎭火

【大邱】십삼일오후여덜시경 영덕군지품면(盈德郡知品面)과 영양군석보면(英陽郡石保面)사이의 면계 반동산(盤東山)내에서 불이이러나 부근부락민이 활동한 관계로 삼일만인 십오일저녁에 근근히진화되엿는데 피해및원인은 방금조사중이라한다

海州商工協會主催 經濟大講演會
廿日夜於南本町禮拜堂
(本報支局後援)

【海州】해주지방의 상공업(商工業)발전에 장리한공헌을 차코잇는해주상공협회(海州商工協會)에서는 경제사상의 보급을긔하고저 본사주필 서춘(徐椿)씨를초빙하야 오는이십일오후일곱시반부터 시내남본정례배당 (南本町禮拜堂)에서 본사해주지국 후원미테 경제강연회(經濟講演會)를 개최키로되엿다

연사서춘씨는 경제학자로서 세간에널니알여도 적거니와 씨의 경제강연은 해주지방에서는 처음인만큼 각방면의인긔를 집중하고잇다고한다

達城郡把溪寺에 不正事件綻露

【大邱】심전개발을 철처히 실시하고잇는요지음종교계에련접허 부정사건만 속출하고잇다달성군 공산면(公山面)에잇는 파계사(把溪寺) 현감무 경모(金某)외 수명은 공모하고 요지에 잇는것을 긔회로 사유송목(寺有松木)을불속을 도벌(盜伐)한외에사유가옥(寺有家屋)을 불법으로파괴하야 개인주택으로 건축한부정사건이 사원의 고발로서 발각되여 방금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서취조중에 잇다는데 달성군에서는 근근 행정처분을 하리라한다

達城郡趙郡守談

심전개발을 주창하는 요지음에 이런부정사건이 발생한것은 매우 재미업는 문제올시다 피해정도의 다소를 물론하고 사건의 정체가 발각되이상은 행정처분을 아니할수업습니다 운운

平壤牛車夫事件 猛搜査만繼續
犯人脫走는十二日前後

【平壤】우차부 우창원(禹昌元)(二三)을 유인하여다가 중화군상원읍(中和祥原邑)에 가든도중에서 참살하고 우창원의소지금과 우차 그리고 소를강탈하여 소는 팔처희흥받고 범인의친부 김은일(金殷日)(四一)이가 파우부시장(飯邑牛市場)에서 팔피버렷다는사실까지는 이수수저기가른 괴사실의일부가 판명되엿스나 대체제일주요한 직접가해자 김효민(金孝敏)(二七)[一名金孝淳]이가 체포되지 안엇슬뿐아니라 피해자의시체와 우차까지도 아직까지발견되지안허 평양서사법계에서는 총동원으로 여러가지 증거물을 매렬히수사하고잇다

진범인은 머리털이빠져 대머리에갓가우므로 아조찻기쉬운인상이며 봉천으로 갓다는사실이 판명되여 임(任)형사부장이 봉천에 급거출장하야 수사중이나 아직까지는 소식이업는것을보아 절망적이며 송호편방면의수사도 이러타할소식이엄다 또한 리(李)경부가 인솔한 시체와우차수사대도 대동군청룡면추미리 (大同郡靑龍面秋美里)에 수사대본부를 두고 맹수사를 계속하고잇스나 아죽 아모것도 발견한것이업서 전부가 비관적재료뿐이다

사건의발생은 륙일밤중에 일어낫고 십일일에는 피해자우창원의 둘재딸 국자(菊子)(七)의 결혼식에도 시친이를 딱때이고 김효민이가 참석하여 념려하는 모양을햇다는 사실에비치어 김효민이가 다라난것은 십이일경으로 추측된다

어쨋든 평양근변의희유한령긔사건으로언제나 어떠케 해결될지을지 퍽도궁금하며 따라서범죄의성질과 사회에던지는영향이 큰사건이만큼 전시청은 진중해잇다

地方人事

▲崔學善氏(東一銀行安城支店支配人代理)榮轉人事次 本報長湖院支局來訪

▲李浣氏(東一銀行長湖院支店支配人代理)赴任人事次 本報長湖院支局來訪

▲金炳訥氏(旺場醫院醫師)開業人事次 本報旺場分局來訪

▲梨專巡回音樂團一行 二十四名 十三日來奉 驛前太平旅館에投宿中 十四日朝 金永燾敎授引率下에人事次本報奉天支局來訪

▲白元信氏(前瑞興稅務署) 鎭南浦稅務署轉勤人事次本報瑞興支局來訪

▲方恒善氏(瑞興稅務署)新任人事次本報瑞興支局來訪

▲溫泉鍾氏(新京支局長)北滿視察次二週日豫定으로十二日出發

▲禹潤宰氏(廣州郡南終面長)新任人事次本報廣州支局來訪

宣川 全朝鮮珠算競技大會

▲時日 十一月二十三日午後一時
▲場所 宣川會館會議室
◇主催 宣川會館
◇主催 朝鮮日報宣川支局

るいれき のんできく 淋巴腺特效 喜ばれる"この療法" 和歌山市三年坂 るいれき專門研究藥院

特製 루ー베리 速히난는淋疾藥 풀음、압흠 꼿곳침 藥價 二円、三円、五円、十円 大阪市南久太郎町堺筋 竹村製劑所 振替大阪三六〇番 ・全國到ル處ノ藥店ニア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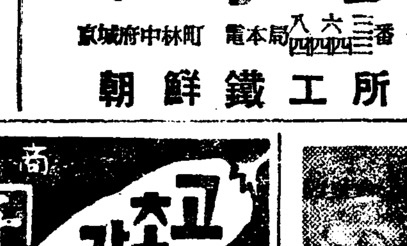
恩給 京城中學町一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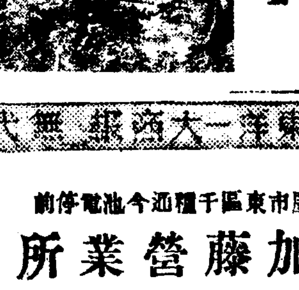
醫學堂眼鏡店 醫專病院眼科指定 無料檢眼 洪錫厚博士擔任 京城鍾路基督敎靑年會館電光二一二八番 型錄進呈

朴家粉・クリーム 박가분・크림 本舖 京城蓮池町二三 電話光化門三三一 京城鍾路四丁目五 株式會社 朴承稷商店 綿絲布都散賣商 電話光五七一 七番

再版 鑛山發見及經營法 附鑛業令 附 朝鮮鑛山及林業分布圖 朝鮮土性及地質略圖 貳幅 發行所 京城府 三文社

地下에埋藏된黃金은簡單한砂金試掘機로! 特許一一二〇三九號 新案二二七二四〇號 新案二三三二七號 京城府中林町 電本局三六八 朝鮮鐵工所





冬物 東洋一大商報 無代進呈 合資會社 加藤營業所 名古屋市東區千種通今池電停前 電話東四八二九番 振替口座名古屋二八九番

巡査看守(講義錄) 朝鮮警務學會 電本2三〇三〇

商標 고초가루 金壽商店製粉部 全州

京城中等豫備專修學院 京城府黃金町六丁目

實踐簿記專修學院 京城府黃金町六丁目

好職業 福榮本舖 大阪天王寺區寺田町

時計 安東縣興東前街 特產物商會

羊皮注文處는 安東縣舊市街入口 國際洋行으로 其他羊皮製衣 國際洋行

新公定米價如何

算出規定은이러타

農林省公表 第二回 米穀統計와 十一月一日 現在高를 基礎로 하야 今米穀年度의 需給推算을 行하면 左와 가티 算出된다 (單位千石)

◆供給

十一月一日在米高 八、〇〇六

産米豫想高 六六、三六七

移入推定 一三、〇〇〇

計 八七、三九三

◆需要

消費推定 七四、〇〇〇

移出推定 二三〇

計 七四、四六六

繰越推定高 一二、九二七

標準持越高 九、〇〇〇

◆過剩米 三、九二七

이數字는 農林省出入記者團과 米穀局長이 豫測的으로 意見交換을行하야 作成한것임으로 大體 自治管理法發動의 條件인 需給推算을行함에際하야 政府가取할 數字와 基準을 示한것이다 過剩米가 算出되는以上 管理法發動의 條件이具備하려니와 米價는 依然高價를 持하고 最低米價의上値一割即二十七圓二十八錢을容易히 割下치안는다 市場方面에서는 新低米價는 過般의 新米賣上으로 推察함과 가티 政府는 依然高米價政策을保持하고잇고 他農産物價格關係도잇슴으로 今年은幾分引上되리라는 [illegible] 日本米穀局長이 就任當時에 確定的이니 마지막善心으로 最低米價의 引上은 旣定事實이다』라고까지 放送하는者가잇다 昭和八年에다음가는 大豊作임에不拘코今年은出廻期에入한後도米價는조곰도下落하지안는다

新公定最低米價決定의 基準이될 物價參酌値(A)와 生産費(B)를 推算하여보면 다음과갓다

(A) 1,310(米價ノ[illegible])×11圓83錢(明治33年10月의米價)×300.4(10月의物價指數)＝28圓65錢(物價參酌値)

(B) 26圓79錢(昨年의生産費)×1.783(昨年의[illegible])+3.0×1.033(本年10月의物價指數)+71(本年勞賃指數)+1圓17錢(昨年의[illegible])×1.033(物價指數)＝25圓04錢(本年의生産費推算)

註 (一) 米價審議會의 審議에 依한 十月의 物價指數에 依함 (二) 生産費構成要素에 關하야서는 各其 高低가 잇고 日銀의 物價調査에 基하야 昨年同期보다 一割로 三分三厘乃至 [illegible] 假定하얏다

最低米價는『最近年産米穀의 生産費에 適當한價格을 加한額』과 農林大臣이 定한『米價指數와物價指數와의 關係로 算出한 價格』即 物價參酌値의 上下値二割에 相當한價格과의 範圍內에서 經濟事情을參酌하야 定한다는 規定으로되엇다 알기쉬웁게 圖解하면이러케 된다

物價參酌値(28圓65錢)
上値二割(25圓79)錢
生産費(25圓04)錢
農林大臣의定하는價格
下値二割(22圓92)錢
이範圍內에서最低價格을決定함

그럼으로 下値二割即二十二圓九十二錢과 生産費二十五圓四錢의中間에서 最低價格이 決定되는故로 昨年의 算式으로 數字의 算術平均을 求하면 二十三圓九十八錢이되고 今年은 現在의 最低價格 二十四圓八十錢에서 [illegible]錢引上될것이다 十二月中旬에 開催되는 米穀統制委員會가 어떠한 數字를 算出할지 豫斷不許이나 이範圍內에서 決定할것은 大體틀림업는것으로 [illegible]

本年度는 前例의 需給推算으로 七百三十萬石의過剩米가 推算되고 米穀自治管理法에 依하야 貯藏되며 米價가 昂騰하야 最低米價의 上値一割을 突破할 時에는 直時貯藏米가 解放되는 關係上 米價는 大體 農林省의 狙하는 最低米價의 上値一割近處에서 釘付狀態로 되게 될것이라고 最高價格이 어떠케 決定되던지 今年은 結局現實的으로는 問題가업을것이다

以上 政府의 高米價政策에 立脚한 方針으로는 別로 引下를 期待할수업고 [illegible] 最高價格은 前述의 物價參酌値의 上値二割과 三割範圍에서 決定될 것이다 本年度最高價格은 三十四圓二十八錢이되고 現在의 最高價格 三十三圓二十錢에서 一圓八錢引上될것이다 그러나 [illegible]

保證準備擴張 公定金利引下

日銀과의利開三厘不遠間是正

朝銀의對朝鮮內方針

朝銀首腦部에서는 朝鮮內金融市場의 情勢에 對應할 金利水準의 是正에 對하야 研究中이바 目下進捗中인 滿洲支店後退問題의 一段落을 待하야 本格的으로 이것의 研究를 基礎로서 方針을 確立키로될 모양이다 即朝銀當局의 問題로서 保證準備의 擴張이 잇는데 朝銀으로는 滿洲支店의 後退後 朝鮮內의 金融圓滑을 期하고 最近顯著히 膨脹한 朝鮮內의 經濟力에 依한 資金需要에 充分應할수잇는 措置로서 極力 保證準備擴張의 實現을 期待하는 同時에 低金利의 大勢에 順應하는 一方 日本內地朝鮮金利의 接近을 企圖하기爲하야 標準金利의 引下를 하고서 考究中이다 現在兩地間의 公定標準金利는 商業手形의 割引에잇서는 日銀은 九厘 朝銀은 一錢二厘로 三厘의 開가잇는데 朝鮮의 金融情勢가 最近顯著히 日本內地金融市場의 影響을受하야 市場的으로는 兩地가 接近된 事情으로보아도 兩地의 利開三厘는 過大하다는意見이 有力함으로 가까운 將來에 朝銀의利下는 充分可能性이잇는것 갓다 要컨대朝銀은朝鮮內의金融에對하야서 保證準備의 擴張과 金利의 低下兩角度로 積極的으로 活動할方針을 取할모양이라한다

京城의銀行金利

日本內地와거의同率

京城中心의 銀行貸付利率은今春來漸進的으로 水準을 低下하야 上期에는 特殊的 一流에限하얏던 一錢 一二厘物이 最近에는 市中貸出에도 나타나서 一錢二厘五毛乃至 一錢五厘는 普通手形貸付水準으로 되엇다 日本內地 朝鮮間의 金利格差現象是正은 朝鮮內의 오래동안 要望이엇는데 上記의 金利는日本內地 地方都市는 勿論東京、大阪에도 一流手形은 別問題로하고 二流程度物과 大差가 업는 狀況이라한다

朝鮮人簡保加入

六十七萬六千件

朝鮮簡易生命保險의 十月中新規契約數는 二千七百六十九件 朝鮮人一萬二千五百七十件 合計一萬五千三百三十九件으로 十月末現在契約數는 日本內地人 二十六萬三千八百三十四件、朝鮮人六十七萬六千七百四十二件 總計九十四萬五百六十七件이라한다

滿洲國政府公債

三千萬圓을發行

【新京十五日發同盟】今回滿洲國政府는 滿洲國中央銀行으로서政府借入金公債를 借換키爲하야 五千萬圓을 限度로서 整備公債를 發行키로되어 第一次四分利三千萬圓의 公債를 發行키로 決定하엿는데 發行條件은 如左하다

一、發行額 三千萬圓

一、額面金額 百圓 千圓 一萬圓 十萬圓의四種

一、利率 一年百分의四

一、發行價格 額面金額百圓에 九十五圓

一、償還期日 康德十三年一月末日까지

右는 十六日 整備公債法公布와 同時에 發行하리라한다

朝銀券發行激增

朝銀의 發行高는 中旬에入한後增大되어 十七日終越은 一躍 一億六千九百二十九萬七千圓으로近年의 最高記錄을出하고 限外發行도 前日에比하야 六百萬圓을 增加한 八百七十九萬四千圓에達하얏는바 南、中朝鮮地方의米資金出廻가 原因이라한다

朝銀의北平支店

大藏省에서認可

朝銀의 北平支店設置는 十三日附로 大藏省으로부터 認可되엇스므로 十七日 朝銀本店에 入電되엇다한다

朝銀後退問題

一兩日中에發表

朝銀의滿洲支店後退에伴한滿洲國과 朝銀과의協定交涉은 解決되엇슴으로 一兩日中에 大藏省及朝鮮總督府로부터 그內容一切를 發表하리라한다

歲末까지短資引締

目下入京中인 小汀利得氏는金融界의 前途에對하야 如左히年內金融緩和持續을 말하얏다 金融界의 目前變化는 各金融機關의 大局樂觀論一致의 逆인데 政府에서는 歲末金融을 압두고 政府支拂의 增大宣傳 明春四月의 郵便貯金利下等을 持出하나 이것은 得策이아니오 各銀行警戒心을 깁게하는 作用을할것이다 從하야 短資引締는 今月中부터 歲末에까지 繼續하고 十二月의中旬頃에는 日銀券의 發行과 如한 近年의 最高記錄을示할것갓다

手形交換週報

(十一月九日부터十四日까지)京城手形交換高週報=第二十週 二萬八千八百九十五枚 金額二千百七十五萬二千圓으로 前週에比하야五、九五三枚 金額五十八萬一千圓의增加이다

商船·南郵의

釜山寄港實現

對外貿易振興의先決 基本問題

對外貿易振興의先決 基本問題는 對外航路의充實에잇고 定期航路寄港이要望되든바 明年四月부터 大阪商船及南洋郵船의 釜山寄港이 實現케 되엇다 이것은 大阪商船의『칼카타』航路와 南洋郵船의 味爪南洋航路가 各其月一回釜山에 寄港하게되것으로總督府의寄港補助는 拓務省의査定을 終了하얏는데 이것이實現되면 朝鮮物産의海外輸出 特히南洋、南中方面의 進出의將來가期待된다한다

經濟界消息

○時局經濟講演會와 座談會=中外商業新報 編輯局長 小汀利得氏、同商店部長 渡邊玄氏의 時局經濟講演會는 十六日午後六時半 府民館에서 盛大히開催하얏고 十七日午後三時半商議會議室에서 小汀氏에게 듯는 會를열엇다고

○日本材木新聞社朝鮮支社設置=그記念으로 朝鮮內木材業者懇談會를 十六日午後二時半부터 朝鮮에서 開催하고 六時半부터 披露宴이잇섯다고

經濟寸鐵

日本經濟界를 조곰이라도 悲觀하는者는 한번 中外商業編輯局長小汀氏의 經濟講演을 드러보라

○

破天荒의 樂觀論、어름넹수를 마시는것보다도 더시원하리라

○

單只數字的으로 列國과 比較하야 結論하야 가로되『歲出이적고 稅負擔이 輕하고 國債는 얼마든지 發行할 수잇스니 財政은 健全、惡性인풀레絶無、貿易躍進、新資本蓄增、貯金累增、金綴低利』等 宛然 景氣의 파노라마

○

그럿키만하다면야 작히나조호련만……

○

數字의 껍질만할고 數字뒤에숨은 眞味는 조곰도 왜맛보지안는다고

○

財政膨脹은 누구의 負擔이요 貿易躍進은 누구의 犧牲인고

○

이것이 보다더 深刻히 考察하여야할 問題가아닐가?

實株門、引大繁昌

投機熱旺盛에基因한것

反動念慮로是正論擡頭

最近의 朝鮮의 現株取引熱의 昂揚은 全혀 驚異的의것이만 日本內地各都市에도 볼수업는 獨自的發展을示하야 金融的으로도 重視한 一部門을 占키에 至하얏다 即 日本內地主要都市의 現株賣買는 極히小口取引이오 大口라도 五十株 百株의 程度에不過하나 京城을中心으로한 近時의 實株取引은 五百株乃至千株의것이만코 株式流通速度가 빠른것도 特長이다 東京現株市場에서도 朝鮮의 取引이 市場을리-드하는境遇가잇다한다 如斯히 朝鮮의現株賣買가 獨自的發展인것으로 現株의取引增大는 證券放資의 增大라고 하기보다도 證券投機熱旺盛에 基한것이다

一、朝取에 長期取引의 制度가 잇스나 有名無實에不過하고 이에代하는것으로 現株引取에依하야 投機妙味를 追키에至하고 日本內地에서는 當然히長期淸算의 出來高로될것이 朝鮮에서는 現株取引으로되는것

一、放資難에잇는 金融機關은 好況時에 不動産融資에자미업섯슴으로 證券金融을擴大코잇고 上記의傾向이 이에依하야 容易히 運用되어 爾金만으로 實株思惑이行할수잇는것如한 動向에對하야 關係方面에서는 一種反動을 念慮하고 是正論이 擡頭하다한다

獨蘇間緊迫으로

諸株俄然奔騰

【大阪電話同盟】 西班牙戰線의擴大에 伴하야 右翼對左翼의 抗爭이 去益 白熱化하고 右에 伴하야 左右의 尖銳 蘇聯對獨逸의 脾睨가 事件마다 表面化하야 去六日의 나치스黨大會에서의 히틀러總統의 打倒볼쉐비즘의 演說은 蘇聯邦에 一大衝擊을 與하얏는데 突然 今回 蘇聯政府는 國內在住 獨逸人二十三名을 間諜行爲의 嫌疑로 逮捕하기에 至하야 獨蘇關係는 正히 一觸卽發의 狀態에잇다 右報를듯고 株式市場은 오래동안 課稅問題等 關係로 仕手雙方의 氣乘薄으로 沈滯하던꿈을깨트려 俄然活況을 呈하야 急速上勢로 東京新東과 如히 前高百卅八圓十錢에서 百四十三圓六十錢으로 五圓五十錢의 大騰騰을演하야 高價大引인 一方大阪市場은 東新百卅八圓五十錢 寄附後四十圓九十錢으로 이것도 二圓四十錢의 上放을 示하얏스며 大新도 七十三圓九十錢에서 七十三圓四十錢으로 二圓五十錢高로 大引되는等活況이엇다

商況 【十七日】

株式 歐洲不安 爆發

前場爆發

昨後場 少康裡에 場을止한東新은 百三十八圓四十錢에寄付하고 日産八十三圓四十錢 朝新三十五圓七十錢 大新七十一圓二十錢等에 各其寄付하야 保合裡에 推移되엇는데 大引臨時에至하야 突然 獨蘇國交斷絶의報를 接하고、東新은九圓으로부터 百四十圓臺로뛰어、다시躍騰奔騰하야 百四十四圓丁의高價를보인後 百四十三圓五十錢에大引하는近來稀有의 可驚할場面을보엿다 이에따라 日産이一擧에八十五圓丁으로 大新이 七十三圓十錢 鐘新이百八十圓五十錢으로뛰어大引되고 朝新三十五圓九十錢、朝取八十八圓五十錢에 各大引되엇다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後場一息

後場은 東新百四十二圓五十錢 日産八十四圓七十錢 鐘新百八十圓三十錢으로 一息商狀이엇다

獨蘇關係惡化

東新은新高價

昨前場에 雜株의瓦落과 함께 前場落을告한東新은 今朝에入하야 獨蘇關係가 極히 緊迫하야 國交斷絶에至할지도 모른다는外電으로 東新이 俄然爆發하야 百卅八圓臺로부터 一擧百四十四圓丁에까지 爆發하야 去叔高價百四十二圓七十錢을 上廻하기 一圓 [illegible]

雜株動向注目

歐洲不安과今後

卅錢의高價를보엿는데 今後獨蘇關係가 果然如何히展開될는지는 豫斷키難하나 歐洲不安을 材料로되는때에는 一大市勢가 展開될는지도 알수업는 形勢가되엇다

東新의 爆發로 一大市勢展開의形勢가되엇스나 여기에서 注目할것은 더우노코 이로써 大市勢가 나라라고 飛付하는것을 避하고 冷靜히午後株界 情勢를보살필 必要가잇스니 即昨日東取市場의 雜株는 電工을 爲始하야 軍需株가 一齊瓦落을告하얏는데 이는二、二六事件以來 株式이 回復途程을 밟은以來最初의 惡化場面이라고 할수잇는바 雜株의惡化가 一時的現象에끈치고 東新에 追隨하야 昂騰하느냐 東新이 一般의高價를보이고나 다시雜株低에 追隨하느냐 하는 것이 今後의 注目하지안흐면 안될要件이니 飛付보담 이에特히 留意함이 可할듯하다

朝取短期株에對한

共同漁株配定處置

日産舊新株에對한 共同漁業新株配定에關한 朝取短期建株에對한 處置는如左히 決定하얏다

A、十一月二十七日 受渡確定後代引株數를 確定하고(當日은早受早渡를 行치안홈) 右에 對한 共同漁業新株式配定數를 算出할것

B、十一月二十七日午前十一時부터 商議員立會下에入札을行할것 (日産新+4)+(日産舊新株+0)=[illegible] 記名 希望株數 希望價格을 記入할것

C、最高價格으로부터 順次落札하고 同價格의것은 希望數量에 依하야 按分함

D、昭和十二年一月三十一日拂込完了後 右受領證及第一回拂込金과 引換으로 朝取는 共同漁業會社의 第一回拂込領收證을交付함

E、代引株皆無時는 商議員會에서權利價格을 査定함

F、C에依하야 確定한落札總平均價格에서 拂込金及額面超過金을除한金額의 四分一을日産新株의權利價格으로하고 十分一을 日産舊株의 權利價格으로함

G、十一月二十七日受渡完了後 現在의繰延玉에對하야 權利金의計算을하고 賣方及買方間에授受함 二十八日諸計算金과 共히함

H、權利金確定後는 取引員組合에通牒하야 市場에揭示함

I、短期市場의 日産舊、新株는 二十七日부터 權利落으로賣買함

短期配當落一束

朝取短期配當落은 如左하다 ▲十一月十六日 滿鐵舊新 ▲二十七日 北海炭礦舊新 東京電燈舊新 日本郵船舊新 東亞煙草新 東新 日産舊新 朝新 ▲二十八日 日本國産 大新 安取 東取 帝人舊新 日本毛織 ▲三十日 朝取

期米 一往一來 閑散

前場少弛

昨後場阪地初付 二十九圓三十錢止와共히 二十七圓二十五錢에場을止한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二十九圓十錢 二十七圓二十五錢인 十丁低로場을 始한後 阪地二十七錢으로八、九錢에서保合하다가 三十錢에止場을作하야 初付二十五錢을最低로 二十三錢의最高價에 場을止하엿다

後場小高

後場은 二十七圓三十七錢인 四丁高로 始場한 [illegible]

六感

株……昨日急落後의東新은獨蘇關係惡化와함께 爆發奔騰! ▲果然歐洲에 戰火가올것이냐? 오다면大市勢는必至로볼것이나 萬若에 그러치안을때에는 失望이 甚히 憂慮 ▲大市勢가 展開되면 될사록 머리만은 冷靜하게가질일 ▲또한外材만이 感할것이 아니라國內情勢와 雜株動向에 特히 留意함이 可할듯……

米……今朝丸仁 三等玄米는 二十八圓四十錢으로 瓦落 此는産地出廻의 威壓임은可知 ▲要하면 今年은 新米의出廻가 約一個月이나 느진만큼 이로부터서 本格的으로 出廻할모양? ▲그래서 今朝當地限은 二十八圓十錢까지 反落하엿스나 압흐로 入圓臺割도可期 ▲株式界는 獨蘇의國交斷絶로 東新은 俄然爆發 그러치만米界에는 人氣만이 幾分擾亂하엿을뿐으로 何等의 影響이업섯다 ▲그러나 獨蘇의國交斷絶이 日蘇中關係의 好轉으로 보지안을수업음으로 米界에도 樂觀이아님은아니엇다 두고구경이나하자구나

自營? 短貯?

不透明한政策

米穀自治管理의 發動은 確實한 바와如히 最低公定米價에서 一割上値의 以下가 아니면 適應되지안흠으로 今日의 阪地先限二十九圓臺와 當地先限二十七圓臺 그에는 自治發動의 必要가 업게되나 그럼으로 自治發動의 必要로 定約으로 短期貯藏은 實施할 듯도 하나 自治發動의 時期까지 暫定的으로 內定은 되엇스나 아즉 正式의 發表가 업슴으로 産地農家는 半信半疑中에 잇서서 賣惜方針을 固執하지못하는 모양이다 오또도 三百餘萬石이나 남아잇는 政府米貯藏은 何時에나 實施할것인지 政府의 態度가 透明치못함으로 持米側은 當分傍觀狀態에잇다 要하면 短期의貯藏을 實施하는 고또政府米의 買替를 實行하는 때에는 米價의 一段反撥을 告할것도가트나 그러치안는限에는 昨今正米의 積極出廻와共히 遂次低落을 告하야 [illegible] 商談도업섯다

骨子업는當限

兩方서로空漠

米出盛期에 直面되어잇는 當限은 今後는 果然如何한 結果를 招來할것인지 자못興味로되는바이다 [illegible]

今日財界 (十七日)

◆米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 三等玄米 [illegible] / 正租 [illegible]

◆市中金銀價 金一匁 [illegible]

◆株 朝新 [illegible] / 東新 [illegible] / 日産 [illegible]

◆商品 大阪綿糸 [illegible] / 大阪綿花 [illegible] / 大阪人絹 [illegible] / 大阪砂糖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朝和木材 [illegible] ▲米倉 [illegible] ▲朝新 [illegible] ▲朝鮮重工業 [illegible] ▲大同産業 [illegible] ▲全鮮證券業所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高率國債는 人氣는 아직解消되지안어 米貨價는 四分半四圓低 五分半五圓低로 續落하엿으나 內國債는 大體로 傍觀商狀으로 鈍狀이엇다

大阪國債市場

[illegible]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 朝鮮低에 弱近으로 부터 崩落한 市勢는 低價에는 追擊치 안코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低落

期米不冴와 各地低落을 보고 買人氣去하야 [illegible]

仁川崩落

當用買不振에 加하야 日本內地買注文皆無에 人氣는 顯著히 衰하야 唱價는 一擧에 三十錢低落이엇다 [illegible]

釜山續落

日本內地의 付價低로 賣買마다 低唱이되고 [illegible]

大邱閑散

期米의 小浮動 [illegible]

群山少堅

細農側의 換金的賣物이 相當히 頻繁하게나오나 正租高等으로 市況은 少堅이엇다 [illegible]

木浦軟調

出廻가 本格的이되어 賣物이 旺盛하나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單位百石)

[illegible]

金融 十七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勢 [illegible]

◆日本銀行勢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塊入價 [illegible]

◆東京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穀 十七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商品 十七日

◆京城綿糸布市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滿洲沖貨 [illegible]

◆朝鮮沖貨 [illegible]

株式 十七日

◆朝取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京取代引日歩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 十七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正米相場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各道正租市勢 [illegible]

商品 十七日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淨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外貨期米 [illegible]

◆日本豆粕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大豆 [illegible] ◆豆粕 [illegible] ◆豆油 [illegible]

康益商店 米 京城 仁川 株 金益證券

仁川 期米 仁 仁川海岸町 紺谷取引店

金銀 金土金石 分析賣買 金銀賣買會社 京城府南大門通一ノ九五 電話本局一三八〇番 振替京城一三四八〇番

期米 福 吉村榮左工門商店